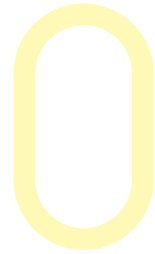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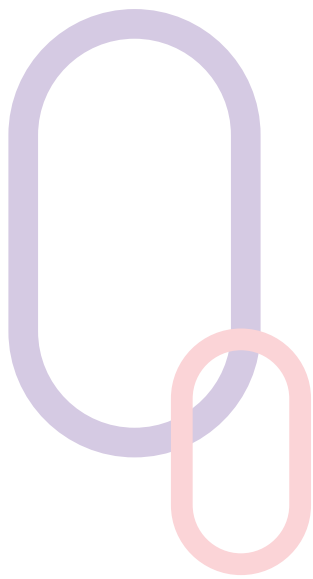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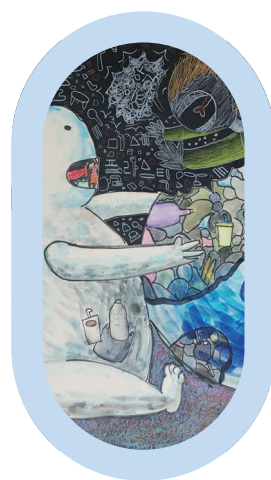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사 업 명 경남독서한마당
운영 기간 2023년 1월 ~ 12월
운영 대상 경남도민
운영 내용 독서공모전 및 독서진흥행사
주 최 경상남도교육청
주 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협 력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발 행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문헌정보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97-33
(055)278-2832
<https://cwlib.gne.go.kr>
비매품
(책표지 출처: 인터넷 서점)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4 심사평

6 수상작품

글 부문

- 초등부 10
- 청소년부 40
- 일반부 52

그림 부문

- 초등부 58
- 청소년부 70

영상 부문

- 초등부 76
- 청소년부 80

82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운영 결과

86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87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2005~2022년)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심사평

글 부문

부지런한 독서가 정신적 성장을 돕고 건강한 독서가 사회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추천 도서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도서를 선택하여 독특한 개성으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수준이 높았습니다.

초등 저학년부

저학년다운 시선과 감상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았으며, 책을 읽고 난 감상을 자신의 일상과 연관을 지어 문학성 있게 표현한 작품들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초등 고학년부

지난해보다 출품 편수가 많아서 수준 높은 작품을 고르느라 고심이 많았습니다. SNS가 세상을 움직이는 가운데 종이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자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거창초등학교 허유경의 『11월 13일의 불꽃』은 목숨과 바꾼 노동자의 삶을 진실하게 그려 내었고, 문장력이 탄탄하고 책의 내용을 압축시켜 이해한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이 돋보여 뿌듯했습니다.

청소년부

청소년부는 대체로 작품 수준이 예년에 비해 고른 편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 고민하는 진로, 학업,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책을 통해 위무 받기도 합니다. 대상작인 정지윤의 『챌린지 블루』를 읽고 '이 세상 푸르른 것들에게'는 작가의 다양한 시선을, 서로 다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마음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을 책을 통해 고민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일반부

일반부의 독서 활동이 동아리를 통해 점점 활성화되는 것 같아 무척 다행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감상문을 잘 녹여낸 작품이 많아서 고무적이라 흐뭇하며, 앞으로 학교와 도서관을 통한 독서 활동이 더 활발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림 부문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에 10,8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본 행사가 성황을 이룬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상 3점, 최우수 22점을 선정함에 있어 심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심사를 했으며, 초등 저학년 대상 작품은 「도시에 물이 차 올라요」 책을 읽고 2학년의 동심을 표현한 창의성이 우수하였습니다. 초등 고학년 대상 작품은 「플라스틱 인간」을 읽고 표현한 작품으로 특히 섬세한 배경 처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대상 작품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수채화 작품으로 주제에 맞는 그림을 성실하고 대담하게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본 행사가 스마트폰보다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부문

공모전에 참여한 청소년 학생들의 창의적인 재능과 문학적 이해력을 영상을 통해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아 총 232편의 작품이 제출되었고 뛰어난 완성도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심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선정 도서의 주제를 잘 이해하고, 책의 내용을 단순히 사진과 글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기나 그림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고민하고 작품에 담아낸 작품들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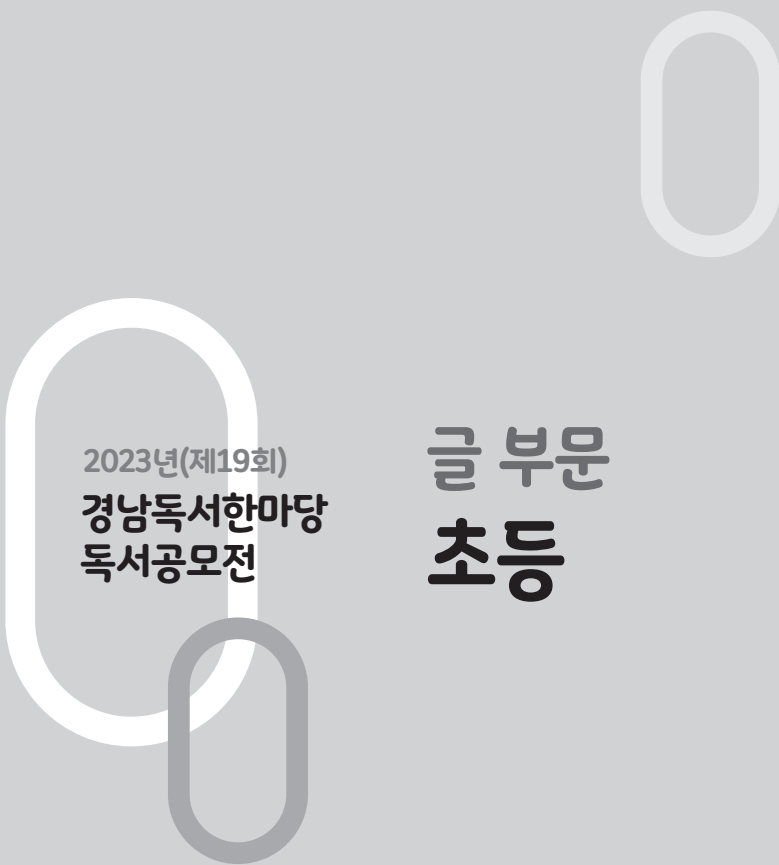
심사과정에서는 모든 작품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각 작품의 독창성·표현력·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수상작은 공모전의 목적과 기준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작품들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은 독서와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인 영상 제작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더욱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글 부문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글 부문
초등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대상

- 010 나에게 용기 충전소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밀양초등학교 3학년 장지훈
- 011 목숨과 바꾼 노동자의 삶
아림초등학교 6학년 허유경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최우수

- | | |
|--|---|
| 014 내 안에 진짜 용기 찾기
대성초등학교 3학년 김연우 | 023 이별이 남기고 간 자리
진해냉천초등학교 6학년 김지우 |
| 015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용산초등학교 2학년 김해나 | 025 세상을 바꾼 작은 불꽃
위성초등학교 6학년 노민균 |
| 016 다시 돌아오는 나쁜 플라스틱 부메랑
감계초등학교 2학년 박정빈 | 026 그날의 외침을 꼭 기억할게요!
월포초등학교 4학년 박솔지 |
| 017 상처받은 들쥐에게 보내는 편지
김해울산초등학교 3학년 성은채 | 028 캔 속의 작은 내 친구
창녕초등학교 6학년 백승리 |
| 018 꼭 남자답고, 여자다워야 하는 걸까?
서창초등학교 3학년 오용준 | 030 삶의 소중함
죽림초등학교 6학년 안시현 |
| 019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행복
산청초등학교 3학년 이윤슬 | 031 플라스틱의 습격
가남초등학교 6학년 오서진 |
| 020 나의 '비밀 용기 충전소'
진동초등학교 2학년 정무권 | 033 마음껏 슬퍼하고, 기억해주세요.
가야초등학교 5학년 윤규리 |
| 021 소문과 진실
창녕초등학교 3학년 정시안 | 035 아름다운 이별
가고파초등학교 4학년 하민주 |
| 022 아보카도의 자신감 주머니
제석초등학교 2학년 진세연 | 037 작은 불씨가 큰 불꽃이 되기까지
삼동초등학교 5학년 황우주 |



나에게 용기 충전소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용기 충전소’를 읽고

밀양초등학교 3학년 장지훈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그 악몽 같던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날이 떠올랐다. 참관수업!

참관수업이 시작되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뒤만 보면 낯선 사람들의 얼굴이 보인다는 생각에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하얀 머릿속엔 저번 주부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모두 한 번씩은 발표를’이라는 글자만이 있었다. 발표를 잘만 하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틀리면 모두가 비웃을 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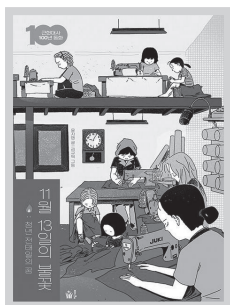
원래라면 절대 부럽지 않을 것이다. 평소라면 발표도 크게 잘하고, 음악실에서는 아는 노래가 나오면 춤도 추지만 오늘은 엄마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틀렸을 때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워서 칠판을 쳐다보느라 목이 아픈 줄도 모르던 때, “발표 아직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시치미를 떼었다. “장지훈이요!” 남자애들이 합창하듯 말했다. 이렇게 된 이상은 시치미를 뗄 수 없었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간신히 발표했다. 하지만 내가 상상하던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틀린 답을 발표한 것이다.

집으로 엄마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까 왜 발표 못 했어?” 나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다. 이 책에서처럼 용기 충전소가 있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주인공 윤재는 환경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해야 하지만 자신이 없어서 걱정이다. 그러다 용기 충전소를 찾게 된다. 용기를 충전하자 당당히 발표를 해서 예선에 통과한다. 그 뒤, 중요한 일들은 용기 충전소에 의지한다. 그런데! 더 이상 용기를 충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날은 환경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는 대회의 결승전을 하는 날이다. 하지만 윤재는 용기를 충전 못 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발표를 하여 결승전에서 당당히 우승한다. 만약 나에게 용기 충전소가 있었더라면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았을 텐데...

참관수업이 있는 지 몇 주 후, 선생님께서 ‘creative’라고 적으시고 발음과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으셨다. 영어에 자신 있는 나는 손을 들고 당당히 뜻과 발음을 발표했다. 저번 시간에 다 같이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하버드대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creative의 뜻과 발음을 정확히 발표하자 선생님께서 내가 하버드대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뿌듯했다. 나도 이제 용기 충전소가 없어도 될 것 같다!



목숨과 바꾼 노동자의 삶

‘11월 13일의 불꽃’을 읽고

아림초등학교 6학년 허유경

우리 사회는 얼마나 노동 인권이 지켜지고 있을까? 노동자들은 과연 안전하게 일하고 있을까? 우리 부모님은 교사입니다. 아침 8시 즈음 출근하시고 5시 즈음 퇴근하십니다. 점심은 급식을 드시고 주말 동안에는 집에 머무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고 있을 때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단순히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으며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부끄러움’이다. 이 책은 전태일에 관한 이야기지만 ‘순옥’이라는 한 여자아이의 시선으로 쓰여져 있다. 순옥이는 초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서울에서 시다 일을 한다. 이야기 맨 처음에 순옥이가 우등상으로 받았던 영어 사전을 오빠에게 주기 싫어 고이 숨겨두는 부분이 있다. 이걸 보면서 내심 좀 민망했다. 나는 영어 사전뿐 아니라 국어사전, 수학 문제집, 영어 문제집, 독해 학습지와 여러 책들을 비롯해 많은 공부할 거리가 있고, 학교도 다니지만 종종 귀찮아 할 때가 있었다. 어렸을 땐 공부보다 놀고 싶은 마음이 앞서 해야 할 일을 미루기도 했다. 그러다 엄마한테 들키면 혼이 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너 문제집 사는 것도 다 돈이야. 공부할 수 있는 걸 고맙게 여겨야지.”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땐 그저 잔소리가 싫었는데 순옥이를 보니 엄마의 말씀들이 이해된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일을 해야 했던 순옥이와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귀찮아했던 나를 비교하니 부끄러워진다.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순옥이는 날 이해할 수 없을 거다. 또 순옥이는 가족을 위해 노동력을 착취 당해도 힘들게 일을 하는데 난 편안한 의자에 앉아 쾌적한 집에서 이 글을 쓰고 있으니 겉연쩍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순옥이와 나의 삶이 정반대인 것 같아 약간의 의문스러움도 있다. 앞으로는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좀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 조금이라도 순옥이 앞에 섰을 때 덜 부끄럽도록 말이다.

내가 두 번째로 느낀 감정은 ‘놀라움’이다. 앞에서 썼듯이 난 부모님 두 분 다 교사셔서 너무 많은 근로나 일의 어려움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야기 속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일을 해서 놀랐다. 16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시설도 완전 엉망이라는 게 화가 난다. 나와 동갑인 순옥이와 내 또래일 수많은 시다들의 아픔과 고통은 내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인터넷을 하다보면 아주 가끔 카카오 농장에서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 혹은 카펫 공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하는 아이들 등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떠다닌다. 이제껏 이런 건 외국의 어느 알 수 없는 나라들 사이에서만 있는 줄 알았다. 근데 무려 우리나라도 고작 50년 전에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었다는 게 씁쓸하다. 시장 이름은 ‘평화시장’인데 그 속에는 평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이걸 읽으니 당시 노동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했을지 짐작이 간다.

이 책을 읽고 당시 노동자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조사한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일단 천장 높이가 1.5m 밖에 안 된다는 게 어이없었다. 내 키가 153cm인데 나마저도 거기에서 일하려면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일할 수 있었는지 신기할 정도다. 그리고 환풍기나 창문이 없어 호흡기 질환에도 시달렸다고 한다. 이야기 속에서도 주인공과 같이 지내는 언니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걸 보면 하루 종일 먼지 마시고 일을 하며 병이 안 걸리는 게 이상한 상황이다. ‘노동자들이 좀 더 청결한 곳에서 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절로 든다. 또 화장실이 단 3곳밖에 없는 것도 충격적이다. 학교에서는 약 3개 반이 1개의 화장실을 이용한다. 그런데 1만여 명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3곳을 같이 쓰다니 30개를 써도 턱없이 부족할 텐데 말이다. 지금이라면 이런 화장실은 써달라고 애원해도 아무도 안 쓸 것이다.

영양실조, 폐 질환 등 갖가지 질병이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일해야 했던 노동자들은 이렇게 일해도 월급이 적어 궁핍했던 상황이 원망스러울 것 같다. 나보고 그런 곳에서 일하라고 하면 정말 만나절도 못 견딜 것 같다. 이렇게 보니 이 악물고 일한 노동자들이 정말 독해 보인다. 가족을 위한 헌신과 고된 노동을 견디어 내는 인내심이 아주 투철하다.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1만여 명의 사람들의 끝은 행복한 결말이길 바란다. 난 진심으로 이들이 웃었으면 좋겠다. 웃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억울하고 허한 마음이었을 것 같다.

내가 세 번째로 느낀 감정은 ‘쓰라림’이다. 이 책의 가장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결말이 되는 부분, 바로 전태일이 화형을 하는 장면은 떠올리지만 해도 코가 찡하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몇 가지 의문이 있었다. 전태일이 정말 대단한 것은 알았지만 ‘왜 굳이 화형을 했을까? 아니 다들 노동 인권을 외면해 왔는데 왜 굳이 나섰을까? 자신을 죽일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고 있다. 책 1권을 읽고 고작 몇 분 동안 조사한 게 다인 나조차도 화가 나고 노동자들이 행복하길 바라는데 이걸 몇 년 동안 실제로 보고 당한 전태일은 나보다 몇백 배 더 의지가 굳었을 것이다.

내가 전태일의 가장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건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은 모습이다. 솔직히 전태일은 힘들게 일해도 재단사니까 대우나 월급은 다른 사람들보다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바보회’를 이끌고 여기저기 부당한 사실을 알리는 모습이 대단하고 멋지다. 내가 노동자였다면 내가 순옥이라면 우리를 위해 뛰어다니는 재단사님에게 감동 받았을 것 같다. 변화를 위해 자신이 목숨을 건 강인함이 존경스럽다.

이런 전태일은 11월 13일 끝내 근로기준법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사른다. 그러면서 전태일은 순옥이와 다른 많은 노동자들에게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외친다. 이 장면에서는 내 마음도 같이 타는 것처럼 쓰라렸다. 전태일은 자신이 화형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두고 쳐다보지 않을 것을 자연스레 깨달았을 뿐이다. 그 결과가 자살이라는 사실이 잔혹스럽다. 전태일을 여기까지 몰아간 상황이 원망스럽다. 그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조금만 지켜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는 성실하고 깨끗한 청년 1명을 잃은 것이다. 시위에서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게 잔인하다. 전태일이 아무리 거센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다. 시위하는 날을 앞두고 ‘이게 과연 맞을까?’, ‘그냥 죽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나 인터넷에서의 전태일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없었다. 하지만 난 분명 전태일도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믿음직한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호소하고 싶고 울고 싶었을 거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기댈 수 없었던 전태일이 안타깝다. 그동안 수고했고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죽을 때도 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아 진심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또 슬펐던 건 시위 직전 전태일의 옷차림이 단정했다고 책에 쓰여진 거다. 담담하게 죽는 날이라고 깔끔히 입은 게 마음이 아팠다. 또 순옥이에게 남은 영어 사전을 물려주는 것 역시 친근한 오빠 같은데 그 뒤 바로 화형을 진행한 걸 읽으니 내 생각과 마음이 실타래처럼 꼬여져 복잡하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책 속의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이 좋게만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초콜릿을 어린이들의 노동 때문에 ‘쓰디쓴 초콜릿’이라 표현하는 것처럼 이 돈도 ‘눈물의 돈’인 것 같다. 1970년대에 벌어들인 돈들은 우리나라 발전에 한몫을 했지만 그 내막을 보고 나니 단순히 화려한 것만은 아닌 발전인 것 같다. 그 당시 발전과 돈에 눈이 먼 정부와 고위직 사람들, 평화시장 사장들이 원망스러운 마음도 든다. 이익을 조금 덜 챙기더라도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챙겨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

이야기 맨 마지막에 순옥이가 “우리 불손하지 않아요! 노동자일 뿐이고 재단사, 미싱사, 시다들이라고요!” 라고 경찰에게 외치는 것도 인상 깊다. 순옥이 말대로 그들은 그냥 노동자일 뿐인데 시위나 데모를 했다고 곤봉을 이용해 매질하고 겁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때의 노동자들의 몸부림 덕에 우리나라의 근로 환경과 노동 인권은 많이 발전했다.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 월평균 근로 시간은 154.9시간으로 약 155시간이다. 1970년대에는 하루 16시간 일을 했으니 이때 10일 일한 것과 현재 1달 동안 일한 것이 비슷하다. 이걸 보니 많이 개선되어서 다행이다. 또 산업재해율 역시 0.63%로 많이 줄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직 부족하고 해결해야 하는 노동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태일과 그 외의 많은 노동자들이 원했던 세상에 한 걸음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안전하게 발전하도록 기여한 전태일에게 감사의 말들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순옥이 같이 노동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즐겁게 근로할 수 있도록 노동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알려야겠다.



내 안에 진짜 용기 찾기

‘용기 충전소’를 읽고

대성초등학교 3학년 김연우

용기 충전소는 공짜로 용기를 주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제한도 있고 한번 충전한 용기는 다시 충전할 수 없으니 생각을 잘해야 할 거 같다. 주인공 윤재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갔다가 긴장한 나머지 우물쭈물해서 친구들이 바보 같다고 말한 뒤로 아이들 앞에 나서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창피 경험도 없는데 왜 발표할 때 큰 소리로 하지 못할까? 집에서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동생과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한다.

엄마는 집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학교에서 발표할 때나 큰 소리로 하라고 하셨다. 틀려도 괜찮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 발표왕 용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운동도 좋아하고, 싸우고 싶은 친구도 없고, 좋아하는 여자 친구도 없으니 운동왕, 싸움왕, 고백왕도 필요하지 않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용기는 목욕왕이다. 머리 감고 샤워는 할 수 있는데 화장실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다. 그래서 샤워할 때는 엄마나 동생한테 문 앞에서 지켜봐 달라고 한다. 두 번째로 필요한 용기는 수면왕이다. 엄마가 옆에 있어야 잠이 잘 오고 혼자서는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안 온다. 하지만 계속 그럴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용기는 어디서 충전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오늘부터 샤워할 때는 큰 소리로 노래도 불러보고 잘 때는 기분 좋았던 일도 생각해서 무서움을 극복하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 봐야겠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잘할 수 있다고 같이 힘내보자고 응원해 줄 것이다.

“김연우, 파이팅!!”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용기 충전소’를 읽고

용산초등학교 2학년 김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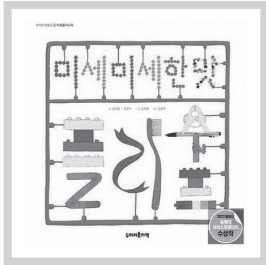
처음 책 제목을 보고 전기 충전소가 떠올랐다.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읽어 보니 자신감을 높여 주는 용기 충전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윤재는 환경의 날 기념 발표 대회에서 용기 있게 말하기 위해 발표왕을 충전한다. 이 일이 잘되자, 싸움왕과 고백왕까지 충전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부작용이 생긴다. 윤재는 자신이 좋아하는 채연에게 용기 충전소의 일을 사실대로 말하게 되고, 사실을 들은 채연은 용기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다르며 또 잘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그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 한다고 용기를 준다.

만약에 실제 우리 주변에 용기 충전소가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자신감이 진짜 용기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이고 잘 안될 때 잘 안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다면 용기 충전소를 사용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딱 한 번 써보고 싶기도 하다. 나는 윤재처럼 학교에서 발표를 잘하고 싶어 발표왕 용기를 충전하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큰 소리로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다. 언니는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는 용기를, 엄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아빠는 지금 용기 있게 살기 때문에 더 큰 용기가 필요 없다고 한다.

용기 충전소는 신비로운 기계다. 이런 기계가 발명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용기를 충전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책 속에 들어가보면 그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과학자가 되고 싶기도 하다. 충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같은 것이 손에 이어져 온몸에 용기가 퍼지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다른 능력도 충전할 수 있을 것 같다. 7월에 본 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에 나온 소원 떡처럼 말이다.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우리를 가르쳐 주는 동화나 책이 많다. 이 책을 읽어도 앞으로 가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는 않겠지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 믿고 싶다. 제발.



다시 돌아오는 나쁜 플라스틱 부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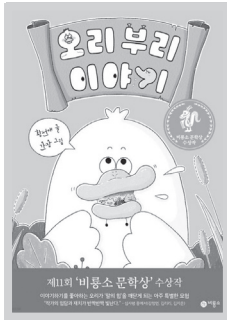
‘미세미세한 맛 플라스투프’를 읽고

감계초등학교 2학년 박정빈

언젠가 가족들과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에 가서 ‘뉴락’이라는 것을 보았다. 뉴락은 쓰레기나 플라스틱이 바닷속에서 돌맹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또 유튜브로 환경오염에 대한 영상을 엄마가 보여준 적이 있다.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큰 쓰레기 섬과 썩은 빨대가 코에 박힌 거북이, 죽은 새의 배 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한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웠다. 책 제목을 보자 미세플라스틱이 떠올라서 슬프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읽어 보았다.

장난감이 망가지거나 싫증이 나면 엄마는 또 사준다. 우리 곁에 있는 장난감, 옷, 샴푸 통, 비닐 등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다. 하수도와 비를 타고 바다로 가고, 바다 생물들이 그 알갱이를 먹고, 그 해산물은 사람이 먹는다. 그 많은 알갱이는 사람 몸에 쌓인다. 마치 플라스틱 레고처럼 엄마가 천연 재료로 끓인 수프도 해산물이 품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미세미세한 맛 플라스투프를 먹게 된다. 그 순간 유튜브에서 보았던 내용이 떠올랐다.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가 일주일에 먹는 플라스틱 양은 신용카드 1장이다. 나도 모르게 미세플라스틱을 많이 먹고 있다는 생각에 후덜덜 떨렸다.

책을 다 읽고 헌것보다 새로운 물건을 좋아하는 내가 부끄러웠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새로운 것을 욕심내지 않고 한번 산 물건을 오래 쓰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레고를 좋아하는 내 동생에게 이 책을 보여주며 그만 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사람이 버린 쓰레기로 생물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 위험이 다시 사람에게 돌아온다니 정말 끔찍했다.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착하고 멋진 어린이가 되어야겠다.



상처받은 들쥐에게 보내는 편지

‘오리 부리 이야기’를 읽고

김해울산초등학교 3학년 성은채

들쥐야 안녕? 나 은채야. 족제비의 거짓말로 인해 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 나는 네가 토끼의 그림을 찢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 족제비가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너에게 뒤집어씌우는 걸로 네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네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럼 된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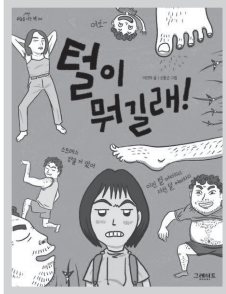
앞치마 요리사가 말했듯이 확실하지 않은 말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덕분에 나도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어.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태풍이든 살랑 바람이든 제멋대로 까부는 바람은 또 형편없는 이야기를 전하러 벌써 저만큼 달아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조금씩 용기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내가 만약에 너라면 친구들에게 “얘들아 내가 토끼의 그림을 찢은 게 아니야. 무당벌레도 그 장소에 있었고, 그 상황을 다 봤다고 했어!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듣고 나를 지목하고 단정 짓는 것에 억울하고 서운해.”라고 나의 속마음을 표현했을 것 같아.

들쥐야 이제부터 기죽지 말고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해. 내가 너의 입장이 되어 보지도 않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을 충고한다고 오해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난 그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고 너를 지켜주고 싶은 진심을 전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 같이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느끼며 다 괜찮다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웃으며 파이팅 하자!! 조금이라도 후회가 생긴다면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해 봐. 그러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들쥐야 힘내!!

- 언제나 너를 응원하는 은채가 -



꼭 남자답고, 여자다워야 하는 걸까?

‘털이 뭐길래!’를 읽고

서창초등학교 3학년 오용준

나는 벌레를 무서워한다. 집에 귀뚜라미가 들어와서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깜짝 놀란 나는 으악~ 소리를 지르며 소파 위로 올라가 구석에 앉아 인형을 안고 울었다. 아빠께서 귀뚜라미를 손으로 잡아 밖에 놓아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자는 벌레를 무서워하면 안 돼. 항상 용감하고 씩씩해야지.”

왜 남자는 벌레를 무서워하면 안 되고, 울면 안 될까?

이 책의 주인공 박하리는 여자인데 털이 많아서 ‘여보(여자 털보)’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는다. 털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하리를 보면서 안쓰러웠다. 구지범은 하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했다. 나에게 하는 소리 같아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나도 털이 많아서 친구들이 놀릴까 봐 두렵고 불안했다. ‘누가 놀리면 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였다. 나는 남자라서 놀림 받지 않았을까? 하리는 자신의 고민을 슬기롭게 대처했다.

“나에 대한 것은 친구들의 시선이나 생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며 더 이상 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로 한다. 그 당당함이 마치 윈터우먼 같았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할까? 사람마다 외모, 재능은 다 다르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구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바라봐 주고 인정한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안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나다움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 나를 숨기고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제는 남자답지 않다고 놀리면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다.

“그게 뭐가 어때서? 나는 이런 내가 좋아.”라고 당당히 말이다.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행복

‘우리 집 식탁이 사라졌어요!’를 읽고

산청초등학교 3학년 이윤슬

나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요일 저녁이 너무 좋습니다. 함께 사시는 친할머니 옆에서 앉아 있으면 엄마는 할머니를 위해 맛있는 고기반찬이 담긴 접시를 놓습니다.

“어머니,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요. 꼭꼭 씹어 드세요. 연세 드셔도 고기를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맛있는 고기를 제 밥 위에 가득 올려봐 주십니다.

우리 아빠는 일을 하셔서 매일 바쁩니다. 밥을 먹을 때에는 빨리 잡수시고 일하러 가셔서 얼굴만 보고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요일 저녁이 되면 느긋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서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음식 맛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집 식탁이 사라졌어요!」라는 책을 읽으며 바이올렛의 슬픔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친구의 집도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오빠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만 편리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신 아빠는 휴대폰을 하시고, 엄마와 오빠도 자기의 한가함 때문에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무더위를 이겨야 한다며 삼계탕을 사주셔서 식당에 갔는데 많은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음식을 먹으며 유튜브 영상을 보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일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집에서 사는 것과 함께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윤슬이는 어떤 친구와 노는 게 좋아?”

“지난번에 넘어진 상처는 좀 어때. 달리기가 많이 늘었던데.”

“엄마가 만드신 반찬이 우리 학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빠, 다음 주에 아빠 생신인데 어떤 선물 갖고 싶으세요? 저는 심부름 쿠폰 10개를 만들어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제 도움이 필요하실 때 쿠폰을 쓰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가 식탁을 살리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비밀 용기 충전소'

‘용기 충전소’를 읽고

진동초등학교 2학년 정무권

이 책의 주인공 3학년 김윤재는 환경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었고, 심지어 2학년 때 영어 말하기 대회 때는 떨려서 우물쭈물 말하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막다른 골목에서 ‘용기 충전소’를 발견하게 된다. 곧 있을 발표를 위해 ‘발표왕’을 선택한 윤재는 친구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해냈고, 그 다음으로 선택한 ‘운동왕’, ‘고백왕’에서는 먼저 충전한 용기 시간이 남아 반은 성공, 반은 실패했다. 그리고 용기 충전소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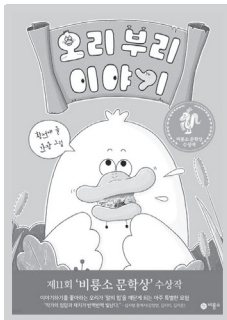
하지만 윤재는 생각했다.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용기는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나도 윤재 형처럼 용기 충전소의 ‘운동왕’이 간절히 필요한 날이었다. 바로 2년 동안 수련해 온 태권도 3품 승품단 심사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총 4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기본 연결 발차기’에서는 평소 실패가 많았던 ‘턴 차기’가 걱정이 되었고, 두 번째 ‘품새 금강’에서는 ‘큰 돌쩌귀’ 자세가 안 나올까 신경이 쓰였고, 세 번째 ‘품새 6장’에서는 자신 있었고, 네 번째 ‘겨루기’에서는 다른 태권도장 형아를 만나 내 발차기 기술을 다 보여주지 못하면 어쩌하나 염려가 되었다. 그런데 옆에 같이 대기하던 5학년 혁진이 형아도 긴장된다는 말을 들으니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나는 안다. 지금 내 마음속의 용기 충전소를 꺼내야 할 때라는 것을. 늘 엄마가 말했다. “권이 가슴 오른쪽엔 아빠, 왼쪽엔 엄마가 항상 있을 거야. 그러니 용기가 필요할 땐 두 주먹 불끈 쥐고 파이팅!”

나는 이 말을 되뇌며 드디어 입장했다. 결과는 ‘아싸!’ 턴 차기도, 주춤서기도, 돌려차기도, 빠른 발차기도, 뒤차기도 모두 대성공.

역시 내 마음속 ‘비밀 용기 충전소’는 오늘도 충전 완료!



소문과 진실

‘오리 부리 이야기’를 읽고

창녕초등학교 3학년 정시안

「오리 부리 이야기」란 책을 읽고 나는 먼저 소문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았다. 소문은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뜻한다고 나와 있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많은 소문이 있다. 당연히 내가 다니는 학교에도 이런저런 소문이 떠돌다가 사라지곤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소문에 대하여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나 생각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숲속 마을에 사는 오리 부리는 말하기를 아주 좋아하며 보고 들은 얘기를 전하며 소문을 내고 다닌다. 사실 오리가 아니라 오리 부리인 이유도 사냥꾼을 피해 도망가다가 입이 너무 가벼워서 몸은 제 자리에 있고 부리만 앞으로 쭉 빠진 것이다.

오리 부리는 토끼가 그린 그림을 찢은 범인이 들쥐라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고 다녀서 들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또 충을 아주 잘 쏘는 사냥꾼을 총만 든 바보 멍청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녀서 겁쟁이 사냥꾼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소문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정작 상처 주는 사람은 오리 부리처럼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나 또한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골치 아팠던 적이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다른 반 남자아이와 사귀다는 소문이 났던 것이다. 그 남자아이와 나는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 같은 라인이고 엄마들끼리 친구라서 몇 번 인사한 게 다인데 그런 소문이 난 것이다. 난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괜히 친구들 눈치가 보였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다. 다행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그 소문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래서인지 나는 이 책에서 범인으로 몰려 숨어버린 들쥐에게 앞치마 요리사가 위로 해주는 말이 인상 깊었다.

“확실하지 않은 말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단다.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까지 잠깐 멈추어 있어 보는 거야. 그리고 확실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어울려 사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소문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는 전하지 말고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은 꼭꼭 숨어 있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멀리 퍼지기 때문이다.



아보카도의 자신감 주머니

‘나에겐 비밀이 있어’를 읽고

제석초등학교 2학년 진세연

아보카도에게

안녕? 나는 진세연이야.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

아보카도야, 너는 네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색깔이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안 예쁜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예뻐. 자신만의 매력이 있다고. 사실은 나도 1학년 때 내 자신이 안 예쁘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하기 부끄러웠어.

그리고 나는 여자인데 남자처럼 거친 목소리가 나와서 항상 발표할 때마다 작게 말했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내 목소리가 ‘기특한 목소리’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나를 잃어버려도 내 목소리만 들으면 바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특한 목소리! 그 말을 계속 들으니,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쑥쑥 자라나게 되었어.

나의 장점은 내 동생을 잘 돌봐. 너의 장점은 수영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거야. 물에 빠진 친구를 수영해서 구해준 네가 참 기특하다고 생각해. 너의 자신감 주머니와 용기 주머니를 채워주는 건 바로 너 자신이야.

나도 거울을 보고 나한테 ‘예쁘다 예쁘다’ 주문을 걸었더니 정말 예뻐진 기분이 들었어. 너도 스스로에게 예쁘다 주문을 걸면 매일매일 진한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뻐질 수 있을 거야. 너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건 화장품이 아니라 너의 자신감 있는 모습일 거야. 너의 자신감 주머니를 채우도록 내가 항상 응원할게!

9월 17일 진세연 씀



이별이 남기고 간 자리

‘기소영의 친구들’을 읽고

진해냉천초등학교 6학년 김지우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프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다. 책에서도 같은 반 친구가 갑자기 죽는다. 나는 이 책을 여름방학 선택 과제로 읽게 되었다. 책의 표지와 제목을 봤을 때 ‘기소영’이 어떤 장소나 사물을 가리키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난 후 ‘기소영’은 친구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정말 나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단지 ‘죽음’이라는 단어 말고, ‘이별의 슬픔’을 드러낸 것이 내 마음을 울린다. 소영이네 가족은 할머니댁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다. 소영이의 동생만 남겨두고 모든 가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소영이는 친구들의 꿈속에 나타나고, 미소만 짓고 있다. 친구들은 그런 소영이를 하루도 빠짐없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다. 친구들은 소영이가 너무 보고 싶었던 나머지 분신사바로 불려내기로 한다. 그리고 소영이를 잘 보내주기 위해 친구들은 49제를 대신해 미사를 하기로 결정하지만, 친구들의 기대와 달리 아쉬움으로 막을 내리고 만다. 친구들은 버스를 타고 소영이의 납골당에 가보기로 결심한다. 유골함이 보관 되어 있는 유리창 너머로 밝게 웃고 있는 소영이의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친구들은 은은하게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죽은 친구를 떠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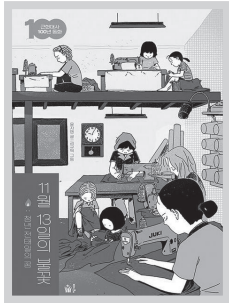
나에게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주시고,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셨던 증조할머니. 나도 소영이의 친구들처럼 할머니의 죽음이 실감 나지 않는다. 그냥 어딘가로 여행을 간 것 같기만 하다. 내 곁에 없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꽃으로 장식된 할머니의 영정사진. 할머니는 활짝 핀 들꽃처럼 미소 짓고 계셨다. 유난히도 쌀쌀했던 발인식 날, 너무 슬픈 마음으로 할머니를 보내드렸다. 할머니의 유골이 담겨있는 항아리는 할머니처럼 고왔고, 단정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 방을 정리하기 위해 엄마를 따라갔다. 그리고는 침대에 털썩 앉았다. 이곳에서 아픈 밤을 누누이 지새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침대 옆,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곳에는 내가 설날에 드린 카드가 꽃혀 있었다. 할머니가 이걸 바라보며 잠이 드셨을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아무래도 우리 지우 중학교 가는 것은 못 보겠제…, 이거 우리 강생이 교복 사입히래이.”라며 엄마에게 20만 원을 쥐여 주셨다고 한다. 그 교복은 내 삶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옷이 되겠지. 교복을 입으면 할머니의 포근한 품과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별에 대한 생각이 이 책을 읽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별은 그 순간만큼은 슬프겠지만 다시 만날 거란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건 다 똑같다. 죽은 친구와의 이별을 정성스레 준비해 주는 친구들의 마음은 이제 슬프지 않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의 존재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다. 소영이도 그렇듯 친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할머니도 언제나 내 마음속에 존재할 것이다. 할머니의 주름진 두 손이 보고 싶어, 하늘 향해 높게 팔을 뻗어본다.





세상을 바꾼 작은 불꽃

‘11월 13일의 불꽃’을 읽고

위성초등학교 6학년 노민균

이 책의 이름은 「11월 13일의 불꽃-청년 전태일의 꿈」이다.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전태일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11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겉표지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고 시계가 10시 5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꽤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것 같다.

나는 책을 읽을수록 심란해졌고 표정은 굳어갔다. 일 16시간 근무, 열악한 시설, 노동자의 건강은 생각하지도 않는 무책임한 공장장과 사장들, 그리고 집안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하는 주인공과 다른 어린 노동자들. 너무 충격적이었다. 지금으로선 믿기 힘든 일들이었다. 생각할수록 매우 화가 나고 열악한 시설에서 곳곳이 참고 버텼던 노동자들이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하지만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고 비극적이었던 것은 전태일의 죽음이었다. 전태일은 평화시장의 재단사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언론에 알렸던 사람이다. 근로 시간 단축, 월급 인상, 건강검진, 일요일마다 쉬는 것, 근로 시설 개선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몸에 불을 질러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장면에서 울컥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노동자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무책임한 공장장과 사장들에 맞서 싸웠던 모습이 용감했기 때문이다. 전태일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노동자들의 인권은 계속해서 짓밟혔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장면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많은 감정을 느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전태일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으며 그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일어설 수 있었다. 전태일의 불꽃은 작았지만 그의 작은 불꽃은 세상을 바꾸었다.



그날의 외침을 꼭 기억하세요!

‘11월 13일의 불꽃’을 읽고

월포초등학교 4학년 박솔지

「11월 13일의 불꽃」은 자신을 희생한 청년 전태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책 표지를 보자마자 작년 이맘때쯤 서울에 간 것이 떠올랐다. 나는 무릎이 좋지 않아 1년에 한 번씩 서울병원에 간다. 볼 일을 다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는 길옆에 특이한 모양을 가진 건물이 있었는데, 전태일 기념관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아침 일찍 전태일 기념관에 갔다. 기념관 곳곳을 둘러보니 전태일에 관한 것들이 있었다.

그러다 본 것은 옷을 만드는 공장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었다. 일을 하는 곳은 엄청나게 좁았다. 2층으로 되어 있고, 천장도 낮았다. 입구가 너무 낮아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했다. 해설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좁은 방에 20~30명이 일했다고 하셨다. ‘헉~! 이 좁은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니!’ 이곳은 책 표지 그림과 같은 곳이었다. 순옥이도 이곳에서 일을 했다. 순옥이가 처음부터 서울에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다치셔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옆집 남희 언니를 따라 서울 옷 공장에 오게 된 것이다.

순옥이가 옷 공장에 가자마자 한 일은 시다 일이다. 시다들은 이름 대신 1번 시다, 2번 시다처럼 번호로 불리었다. 왜일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1번, 2번이라고 들으면 나는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왜냐하면 소중한 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없애버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시다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실밥 분리하기, 옷감 가져오기, 미싱사 심부름하기 등을 한다. 그런데 충격인 것은 이렇게 일을 하고 커피 한 잔의 값인 50원을 받았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일하고서이다. 점심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그때마다 시다들은 굶주렸다. 내가 시다였다면 너무 힘들어서 울었을 것이다.

‘순옥아~! 넌 힘들지 않았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책을 보다가 ‘이건 너무해!’ 하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남희 언니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피를 토하게 되었는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부분이였다. ‘언니는 얼마나 아팠을까?’ 옛날에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해주지 않았나 보다. 너무 나쁘다. 요즘은 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해주는데, 이 시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지금 2023년도로 데리고 오고 싶다. 지금은 다치면 보상도 해주니까. 그리고 순옥이가 너무 불쌍했다. 열세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좁은 방에서 16시간 동안 일을 하다니! 나는 열한 살인데 2년 뒤에 시다 일을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못할 것 같다. 순옥이는 시다 일이 진짜 힘들었을 것이다. 이때 전태일은 힘든 시다들에게 천사 같았다. 시다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배고파하면 자기 차비로 풀빵을 사주었던 전태일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처음 바보회를 들었을 때 ‘뭐지? 바보같아서 바보회인가? 아닌가? 바보가 아니라서 바보회인가?’ 했는데 ‘근로기준법을 몰랐던 우리는 바보입니다.’라는 뜻의 바보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상한 뜻 같던 바보회가 엄청난 뜻을 가진 모임의 이름으로 들린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시행되고 있는데 바보회 사람들의 덕분인 것 같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오면 매우 기뻐할 것이다. 내가 순옥이가 살던 시대에 가면 공부는 하지 않고 옷 만드는 공장에서 열심히 바느질만 하고 있을 것 같다. 나를 2013년에 낳아주신 우리 엄마가 새삼 고맙다. 순옥이는 내가 부럽겠지? 순옥이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1970년에 살고 있는 열세 살 순옥이에게

순옥아 안녕~! 나는 2023년에 살고 있는 열한 살 솔지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태어났어야 했어. 지금은 네가 원하는 공부를 끝없이 해도 되는데! 그런 네가 공장에서 16시간 동안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 순옥이 너는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남희 언니를 따라 옷 공장에 왔잖아. 열세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아는 언니 따라 서울 가서 일하라고 하면 절대 가지 못할 것 같아. 난 겁이 많거든. 너도 무서웠지만 옷 공장에 갈 수밖에 없었겠지? 내 생각에는 무서워도 꼭 참고 간 네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순옥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얼른 미싱사가 되렴! 넌 꼭 할 수 있어! 아프지 말고 아프면 공장 못 가고 잘리잖아. 그리고 태일이 오빠가 11월 13일에 하늘나라에 갔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슬펐어. 책 속에서 만난 태일이 오빠는 참 착했거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순옥아! 태일이 오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알아? 몸에 불을 지르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했어. 죽는 순간까지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을 생각한 거야! 그러니 순옥아. 우리 태일이 오빠를 기억하자! 11월 13일에 밝게 타던 희망의 불꽃을 기억해! 그럼 안녕~순옥아!

2023년에 살고 있는 열한 살 솔지가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11월 13일의 불꽃!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 날의 외침을 꼭 기억할게요!



캔 속의 작은 내 친구

‘애니캔’을 읽고

창녕초등학교 6학년 백승리

작고, 까망고, 둥그란 강아지 코가 콧구멍을 벌렁대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만 같다. 넌 왜 통조림 캔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떻게든 어서 빨리 저 가엾은 강아지를 캔 속에서 꺼내주고 싶은 내 마음과는 달리 알록달록한 깡통들은 강아지의 힘든 상황을 외면하기라도 하듯 너무 알록달록해 보여 괜한 심술이 날 정도였다. 나쁜 일이 아니길 바라면서 책장을 서둘러 넘기며 네가 속한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어.

주인공 새롭이에게는 친한 친구 사랑이가 있다. 어느 날 사랑이는 아빠에게서 받은 ‘애니캔 추천권’을 새롭이에게 주게 되고, 가족들의 냉전을 못 이긴 새롭이는 냉전 상태를 끊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애니캔 상점을 방문하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롭이는 마음에 쏙 드는 강아지를 만나게 되고 곧장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이름을 별이라고 지어주며 반려 강아지 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추천 경품으로 애완동물을 준다고?! 애완동물이 물건도 아닌데 경품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하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나의 걱정과는 달리 웃음기 없던 집 분위기는 별이로 인해 강아지 꽃이 핀 것 마냥 따뜻한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기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다행이다 싶기도 했다.

새롭이네 가족의 반려 강아지 맞이 that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줄 알고 흐뭇해하던 그때, 사건은 일어났고 안타까운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 별이가 우연히 북엇국을 먹고 이유도 모른 채 쓰러졌고, 크게 아프게 된다. 그 작고 귀여운 별이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사실 별이는 조작된 채로 캔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었다. 별이는 철저한 계획 아래 만들어진 반려 강아지로 어미에게서 태어나자마자 캔 속으로 들어가 영양액에 담긴 채 동면의 시간을 지내왔다. 그 영양액은 강아지의 성향을 조건에 맞도록 변하게 하는 힘을 가졌고, 조건에 맞는 주인이 나타나면 캔을 열고 동면에서 깨운 뒤 그들의 반려 강아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다. 별이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캔 속에 갇혀 작은 서랍에 빼곡이 수납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



다. 맞춤형 반려동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특별식만 먹어야 했고, 그 이외의 것을 먹었을 때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만큼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북엇국을 먹은 별이가 쓰러졌던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쯤 되면 애니캔을 세상에 있게 한 개발자가 궁금해지는데 애니캔을 개발한 러비박사는 치료제가 아직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둘러댔 뿐, 이 무모한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하는 러비박사의 태도가 너무나 괘씸하고 답답했다. 보다 못한 새롭이와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 설문조사지를 돌리고 애니캔 회사의 실체를 파헤치는 사진과 영상을 다루는 브이로그를 시작했다. 그 노력으로 애니캔의 문제가 기사에 오르면서 공론화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자 더 이상의 동물에 대한 인공동면 기술 사용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더는 피하기만 할 수 없었던 러비박사도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기로 한다.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별이는 다시 캔 속으로 들어가 동면 상태로 있으면서 기다리기로 했다. 새롭이는 별이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별이는 곧 잠에 빠져들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어쩐지 결말에 대한 아쉬움이 남은 나는, 나만의 결말을 만들어 보았다. 치료제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되었고, 별이는 동면에서 깨어나 치료제를 먹고 건강을 되찾았으며 새롭이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여느 반려동물들처럼 먹으며 행복하게 잘 지냈다고 맺음하고 싶다. 너무 평범한 결말 같아 보이지만 이보다 더 좋고 마땅한 결말이 또 있을까? 때로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기도 하다.

내가 지은 결말 속 별이의 코는 여전히 작고, 까맣고, 둥그렀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차가운 캔 속에 담겨서 힘든 숨을 쉬는 코가 아닌 새롭이 무르팍에서 새근새근 코를 골며 달콤한 낮잠을 자고 있는 별이의 작고, 까맣고, 둥그란 코!이다.



삶의 소중함

‘기소영의 친구들’을 읽고

죽림초등학교 6학년 안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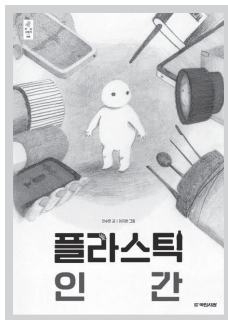
죽음이란 단어에서 오는 나의 생각은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는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있고, 아파서 죽는 게 아닌 교통사고나 심정지 같은 갑작스러움을 맞이할 수도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보다 예전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갑작스러운 죽음보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나을 것 같다.

나는 기소영이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기소영의 친구들이 볼 때도 훌륭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거다. 다른 친구들 모두 연화의 엄마가 무당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무섭다고 했는데 소영이는 신경 쓰지 않고 연화와 친하게 지내서 멋지고 대단한 것 같다. 기소영이 연화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도 진정한 친구 사이에서의 배울 점인 것 같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힘들어도 현실을 사는 게 낫다는 말이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도 없고, 혹시 지옥에 갈 수도 있으니 그냥 살아있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든 죽는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죽음을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작년 이태원 압사 참사로 많은 시민들이 깔려서 다치고 사망을 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유가족을 걱정이나 위로하기는커녕 왜 그날 사람들이 많은 걸 알면서 신나게 놀다가 죽었냐면서 다친 사람들을 비난만 했다. 위로는 어렵고, 비난은 쉽다. 왜냐하면 비난은 그냥 무시하는 말이고 비판은 나쁜 말을 내뱉으면 되는데 위로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함께 울어주거나 해주기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사람들이 비난은 하지 말고 위로되는 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상황을 잘 알고 있거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 해야지 맞는 것 같다.

죽음보다 소중한 건 삶이다. 어떻게 죽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기소영은 13년을 짝 짝 채워 살았고, 친구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존경받는 아이였다. 난 죽음을 그저 아프고 힘들다고 생각을 했지만 「기소영의 친구들」은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게 해주고 삶의 소중함도 느끼게 해준 고마운 책이다.



플라스틱의 습격

‘플라스틱 인간’을 읽고

가남초등학교 6학년 오서진

최근 들어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뉴스로 많이 들어 보았는데 우리들이 먹는 미세플라스틱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대해 듣고는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다. ‘그렇게 먹은 미세플라스틱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본 적 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먹은 미세플라스틱이 쌓여서 사람이 아기를 낳듯이 배꼽으로 자그마한 (책의 설명을 빌리자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플라스틱 인간이 태어난다는 설명이 나온다. 그렇게 될 리 없지만 신선한 발상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적지 않은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왔다. 배꼽으로 플라스틱 생명체가 나온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올 때 엄청 가렵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일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그러다 ‘툭’ 하고 인간의 형상을 한 플라스틱 생명체가 나와서 움직이고 꼬물거리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플라스틱 인간을 낳은 주인공 제임스는 유명세를 겪고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내용이 전개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플라스틱 인간을 낳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플라스틱 인간은 특별한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집에 남아도는 플라스틱을 먹어 치우면서 재활용 청소부의 느낌까지 들게 하는 내용이 나왔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나도 이런 플라스틱 인간을 애완동물 기르듯이 하나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며 미소가 새어 나오기도 했다. 집에는 여기저기 플라스틱이 넘쳐나니 먹이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되고 먹이로 플라스틱을 주니 재활용 쓰레기 처리도 안 해도 되고, 인형이나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같이 놀기도 하는 그런 상상들을 해보았다.

책에서도 주인공은 플라스틱 인간에게 수어도 가르치고 집도 만들어 주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듯 보였다. 그러나 플라스틱 인간이 마냥 그렇게 조그맣고 귀엽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계속 플라스틱을 먹이로 주니까 사람이 자라듯이 계속 커지면서 주인공의 일상생활을 침범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칫솔을 먹는다는지, 배달된 음식의 포장 용기를 다 먹어 치워 음식물을 쏟고 플라스틱으로 된 화분을 먹어 흙을 쏟는 등 이제는 편리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어릴 때 읽었던 불가사리 이야기가 떠올랐다. 스님이 밥물로 만든 조금만 벌레 모양의

불가사리가 모든 쇠붙이를 먹어 치우면서 거대한 괴물로 커진다는 이야기였는데 플라스틱 인간이 커지면서 괴물화 되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공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플라스틱 인간에게 나가라고 하지만 플라스틱 인간은 오히려 주인공에게 “이 집의 주인공은 나!”라고 하는 장면에서 책은 끝이 난다.

책은 이렇게 끝나지만 ‘앞으로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지구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거대해진 플라스틱 인간에게 집의 주인인 사람들이 쫓겨나고 거대해진 플라스틱 인간들이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집 밖에 있는 플라스틱을 먹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면서 인간들은 그런 플라스틱 괴물들을 피해 플라스틱이 없는 곳을 찾아 도망가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살만한 환경이 아닌 곳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이 살기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환경에 대해서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심각하게 들었다. 나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이 지구에서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구환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고민해 보고 방법을 찾아서 실천할 것이다.





마음껏 슬퍼하고, 기억해주세요

‘기소영의 친구들’을 읽고

가야초등학교 5학년 윤규리

내가 9살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때 아주 많이 울었다. 내 눈이 마치 작은 폭포라도 된 듯이 눈물이 흘렀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냥 우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 같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다. 친구를 잃은 슬픔도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친구들의 마음이 할아버지를 떠나보냈을 때 내 마음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내 친구 기소영은 이제 없다. 소영이의 흔적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책 뒤표지에 적혀 있는 말이 인상 깊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친구들이 소영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로 와닿았다.

친구를 잃은 4명의 아이들, 채린이, 나리, 연화, 그리고 영진이가 친구 소영이를 기억하며 소영이와의 추억, 소영이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이야기다. 소영이가 가족은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올라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소영이 엄마, 아빠, 소영이가 죽고 동생만 살아남았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소영이의 친구들은 충격에 빠졌다. 채린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고 나리는 평소와 달리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연화는 울었으며 영진이는 어떡하냐고 울부짖었다.

소영이의 빈자리를 서로 채워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되면서 한층 더 가까워진 친구들이 소영이를 보내줄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 한다. 분신사바도 해보고, 소영이 49제를 지내주려고 성당에서 미사도 드린다. 하지만 채린이는 ‘이게 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찝찝한 마음 때문에 핑곗거리로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 소영이의 납골당에 간다. 가봐야 할 곳을 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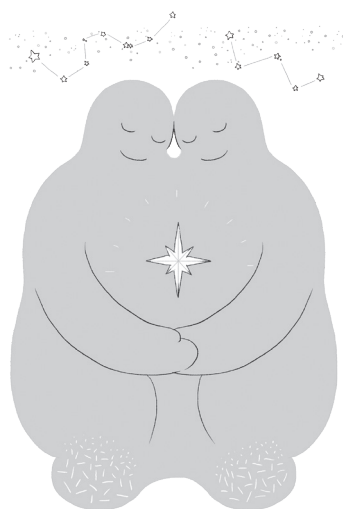
소영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납골당에서 소영이를 만나고 나서 소영이 이야기를 하며 처음으로 웃고 떠들게 된다. 나는 이때 하늘에서 소영이도 친구들을 보며 같이 웃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친구들이 자기를 생각하며 슬퍼하지 않으니까.

책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소영이의 장례식에 가지 못하게 한다. 소영이의 죽음으로 아이들이 불안해 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셨던 것이다. 하지만 슬픔은 표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생각할 때 더 잘 보내줄 걸... 이런 후회가 밀려오지 않고 슬픈 생각만 나지 않도록. 그런 모습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도 원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울고 마음껏 슬퍼하며 나의 감정에 솔직해지면 죽음의 슬픔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숨바꼭질했던 것, 날 항상 반겨주시며 안아주신 것, 산책했던 것,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우리 가족들은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그게 우리 가족이 할아버지와 이별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다. 우리 가족은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잘 배웅해 드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슬프지 않다. 보고 싶어 눈물이 나긴 하지만. 소영이의 친구들도 소영이가 보고 싶겠지만 소영이에 대해 좋은 기억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길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죽음은 여전히 무섭고 슬프지만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슬퍼하고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아름다운 이별

‘기소영의 친구들’을 읽고

가고파초등학교 4학년 하민주

“오빠!!!!!! 열대어 한 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무슨 소리야? 열대어가 발이 달렸냐? 사라지게?”

잘 자고 기분 좋게 일어난 아침이었다. 귀여운 물고기 동생 두 마리를 보러 곧장 어항으로 향했다. 잘 놀고 있어야 할 열대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잠결에 잘못 봤나? 잠이 덜 깨서 못 찾고 있나?’ 이상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어항을 둘러봤다. 정말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사라진 사실도 너무 놀라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는데 나중에 남은 열대어가 나머지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다.

그렇게 힘들고 충격적인 며칠을 보내던 중에 혼자 살아 있던 다른 열대어도 죽고 말았다. 남은 열대어 한 마리까지 없어지고 나니 어항은 정말로 텅 비어 있게 되었다. 내 마음도 텅 빈 것만 같았다. 열대어 두 마리를 할머니 집에서 얻어 와서 내 동생이 생겼다고 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 두 마리가 짝짓기를 해서 세 마리, 네 마리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꿈을 꿔었는데 물고기의 죽음을 보고 많이 슬펐다. 또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것만 같아 미안하기까지 했다.

물고기의 죽음도 이렇게 슬프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데, 기소영의 죽음을 친구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내가 소영이와 함께 지낸 친구였다면 내 기분은 어땠을까? 나는 친구 소영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다. ‘왜 나는 소영이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미안함과 죄책감, 후회가 가득 차올라 눈물이 펄펄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내가 연화였다면 엄마 집에 소영이와 매번 버스를 타고 반찬을 가지러 갔던 추억이 생각나고, 소영이에게 함께 가줘서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한 것이 계속 후회될 것 같다. 왜냐하면 소영이는 연화에게 참 든든하고 좋은 친구였기 때문이다. 연화가 처음 전학 온 날에 소영이는 연화 엄마가 무당인 것을 알고도 다른 친구들처럼 이상하게 보거나 신기해 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채린이도 소영이와 똑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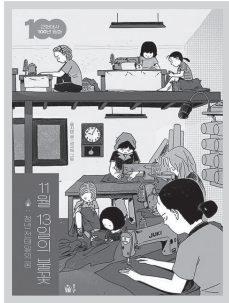
“너희 엄마가 무당이지, 너는 무당이 아니잖아. 너희 엄마는 엄마고, 너는 너지.” 친구들이 이렇게 든든하고 똑똑하게 이야기해주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친구인 소영이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으니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까?

만약 내 친구가 갑자기 죽는다면 나는 과연 그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친한 친구의 죽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친구를 하루아침에 다시는 못 보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슬퍼 눈물이 날 것이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잊어가겠지만 그래도 마음속, 기억 속에 오래 남아서 문득 문득 떠오를 것 같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엄마, 이번 제 생일 선물로 강아지 키우는 거 허락해주시면 안돼요?” 나는 매년 생일이 될 때마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하지만 엄마는 안된다고 하신다. 그 이유는 엄마가 대학생 때 1년 정도 키우던 강아지를 미용하러 맡겼는데 미용을 받던 도중에 토를 했고, 그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 죽었던 기억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셨다. 그 일로 엄마는 일주일 넘게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잤었다고 한다. 그만큼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일은 큰 슬픔이라 그런 일을 어린 내가 최대한 안 겪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 그 슬픈 이별을 통해서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도 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모든 생물은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 소영이가 친구들보다 조금 빨리 하늘나라로 갔을 뿐이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은 소영이가 정말 좋은 친구였다는 증거라고 느껴졌다. 친구들이 이렇게 소영이를 그리워하고 기억한다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지켜본다면 소영이도 행복해 할 것 같다. 소중한 이와 함께 하는 지금의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해야겠다고 느꼈다. 그러기 위해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맞이하고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보다 주변을 잘 챙기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작은 불씨가 큰 불꽃이 되기까지

‘11월 13일의 불꽃’을 읽고

삼동초등학교 5학년 황우주

「11월 13일의 불꽃」이라는 제목을 보자, ‘왜 11월 13일의 불꽃이지?’ 궁금한 마음에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순옥이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어린 나이에 서울에 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순옥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재봉사였던 전태일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11월 13일 노동자들은 시위를 벌이고 전태일 재봉사의 분신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너무 답답하였습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마치 사람들을 기계처럼 대하는 공장주에게 화가 났습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어린 소녀나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태일은 이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동료들을 모아 바보회를 만들어 근로기준법이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노동청에도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자 전태일과 노동자들은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시위를 계획했고, 이 또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전과 함께 온몸으로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해 스스로 분신하였습니다.

저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모든 노동자를 위해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은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리고 젊은 청년을 그렇게 내몰았던 현실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의 노동환경은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되고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뉴스에서 가끔 일부 열악한 노동환경과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과 노동력 착취, 사고 처우 미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창 포켓몬 빵의 스티커를 모으는 재미에 빠졌을 때, 엄마는 제게 어떤 빵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빵 만드는 공장의 20대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고,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노동자의 죽음은 과로사로 근로기준법을 속이고, 휴무도 거절당한 채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에 말이죠. 더 화가 났던 것은 이후 이 회사는 사고에도 별다른 개선점이 없이 대충 무마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알려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 회사는 오빠와 저, 그리고 동생이 너무 좋아하고 자주 가던 도넛, 아이스크림, 케이크, 햄버거, 캐릭터 빵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당연히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었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 형제 3명은 같이 분노하였고, 이 회사에서 만든 것들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웬지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아주 작고 미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글 부문 청소년

경상남도교육감상



청소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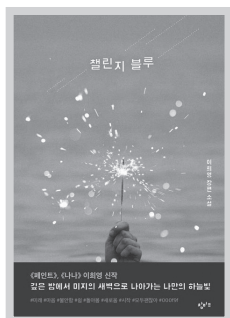
- 040 이 세상 푸르른 것들에게
남해제일고등학교 1학년 정지윤

경상남도교육감상



청소년 최우수

- 042 행복 질량 보존의 법칙
반송여자중학교 2학년 김도희
- 044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 인간입니다.”
마산여자중학교 3학년 백서빈
- 046 그러데이션
경남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정영하
- 048 일상과 책과 커피
김해울하고등학교 2학년 정재민



이 세상 푸르른 것들에게

‘챌린지 블루’를 읽고

남해제일고등학교 1학년 정지윤

매일 전자 기기들이 내뿜는 빛과 전자파를 접하면서 화면 안 글씨만 바라보다가, 빛을 받아 볼 수 있는 하얀 종이 아래의 글씨를 읽으니 오랜만에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기분이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난 뒤, 나는 책을 고를 때면 진로와 관련된 책만 주야장천 1순위로 고집하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생기고야 말았다. 그래서인지 이번 독서만큼은 독서공모전이라는 핑계일지라도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그저 내용만으로 가볍게 힐링할 수 있는 책을 읽어서 마음이 한결 산뜻해짐을 느꼈다. 그렇게 나의 산뜻함과 함께 ‘챌린지 블루’를 읽고 난 후, 오랜만에 책을 읽고 내용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았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생각들은 일단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었다. 먼저 하나는 책의 이야기와 나의 일상이 접목되어서 공감을 했던 내용, 또 하나는 나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온 문장들을 토대로 내 나름대로 해석해 본 내용으로 나누어 보았다.

나는 독서를 할 때면 이야기의 내용이 자연스레 하나의 장면과 장면으로 머릿속에 그려지곤 한다. ‘챌린지 블루’는 미대 입시를 오래 준비하던 주인공 ‘바림’이 자신보다 뒤늦게 미대 입시 준비를 시작한 절친 ‘해미’에게 느낀 작고 사소한 질투들이, 오랜 입시 준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자신에게 삶의 어떠한 깨달음으로 돌아와 ‘미래에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되고 싶은 나는 누구인지, 꿈꾸고 갈망하는 것은 어떤 형태인지...’를 독자들에게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일상을 담은 소재들은 나와 비슷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평범한 고등학생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잘 담아냈다. 그래서 이 책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왔달까. 특히 그런 친근한 모습 중에서도 우리의 사소한 학업 고민 이야기는 내게 더욱 더 큰 공감을 불러왔다.

이야기의 큰 주제는 ‘슬럼프’.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 햇볕이 짙은 날 잠깐 내렸다가 그치는 여우비처럼 우리의 타오르는 학업 열정이 너무 과부하 되기 전에, 그러니까 ‘슬럼프’를 겪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잠시 시원하게 식혀 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슬럼프, 무언가에 진심을 오랫동안 쏟아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슬럼프는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찾아오곤 하며, 또 내가 의식하고 있지 못할 때 갑자기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게 무한히 극악의 어두컴컴한 블랙홀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중임을 어느 순간 인지할 때면, ‘그땐 다 늦었다고’, ‘그냥 포기하고 말지.’ 같은 단순한 생각들이 가볍게 들곤 한다. 이 책의 주인공 ‘바림’처럼 현대 사회에서의 빠듯한 대학 입시 체제 때문에 열심히 죽어라 공부하고 꿈을 위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려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겪게 되는 시기가 바로 슬럼프이다. 책에서 ‘바림’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어깨에 얹고서 달려온 나날을 되돌아보며 더 이상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극도의 슬럼프를 느끼게 된다. 더구나 절친 ‘해미’는 자신보다 더 늦게 입시 미

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아직 그 슬럼프를 느껴보지 못해서 지을 수 있는 꿈에 대한 설렘과 미소를 보고 그것을 마냥 부러워한다.

그런 ‘바림’에게 내가 전해주고 싶은 말은 단지 그저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다고, 남의 일에 신경이 쓰이는 건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집중해 너무 많은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저 되고 싶은 미래를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라고,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다면 그때 잠시 멈추어 보라는 말이다.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 세상의 모든 ‘바림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보통 뜨거운 여름날에 가장 갈망하는 것이 시원한 산들바람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입시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갈망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 낯선 다름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말자는 것.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이라는 존재는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고, ‘바림’에게는 그 다름이 슬럼프로 다가온 것처럼 말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언가가 낯설고 어색한 것이라도, 결국 모두 극복하고 우리의 굳센 의지가 있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너무 복잡하고 바쁜 사회에 속아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조금만 천천히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그 극악의 어두컴컴한 블랙홀을 이겨낼 힘이 있는 청춘에 살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다!

또, 이 책을 읽으며 사용된 특정 단어나, 함께 어울리는 문장 중 내 마음에 깊게 자리 잡은 내용들이 아주 많았다. 작가가 그만큼 단어의 쓰임을 아주 공들이고 표현마저도 적절히 잘 사용해 이 부분을 따로 기록해 두고 싶어 여백에 메모를 자주 하곤 했다. 채워 나간 메모 중 내가 가장 깊게 주목한 내용은 ‘색’의 비유인데, 이 책에서는 아주 잦은 빈도로 섬세하게 ‘색’의 비유가 등장한다. 책의 제목인 ‘챌린지 블루’처럼 제목부터 색을 드러내는 표현을 설정했기에 내가 책을 읽기 전부터 이 책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덧붙여 책 속의 문장 중 ‘늦은 오후에서 자정으로 갈 때 하늘의 색과, 새벽에서 아침으로 가는 하늘의 색은 같을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의 한 부분으로 흘려보낸다. 하늘이라면 그냥 매일 보는 풍경이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다가오는 것이라서 그만 놓치고 살아왔을지도 모른다.’이다. 처음에 이 내용을 읽고서는 ‘도대체 똑같은 하늘색에 대해 뭐가 궁금한 걸까?’라고 고민을 해봤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무언갈 딱 느꼈다. 앞서 말한 내용과는 상반되게, 우리가 보는 하늘은 개인의 시선에서 각각 다 다르게 당연해지는 것이다. 정작 하늘은 멈춰있는데, 우리가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다양한 시선들로 하늘을 평가하니 다 다르게 보인다는 말이다. 바로 그것이 곧 개인의 입장이 되어 각각 당연시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평소의 하늘은 우리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다. 우리만이 하늘을 다른 색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 하나의 무언가가 있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단 거다.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은 아주 다양하기에, 이런 세상 속에서 조금의 다름은 무조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보면 의심과 의문을 먼저 가지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순 없을까? 이 책의 제목인 ‘챌린지 블루’를 그대로 직역하면 ‘파랑을 도전하자’는 뜻인데, 이 ‘파랑’이라는 것 안에는 파란색 말고도 푸르른 또 다른 계열의 하늘색, 청색, 민트색 등이 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색들을 맞닥뜨리며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너와 다르고, 같은 푸른색이지만 파랑이 하늘과 다르고, 똑같은 입시 미술을 하지만 바림과 해미가 다른 것처럼 이 안에서 살아가는 나와 우리들을 모두 서로 마주 보고 웃음 지을 때의 소소한 아름다움이 바로 삶의 행복이자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한 방향이 아닐까!



행복 질량 보존의 법칙

‘얼토당토않고 불가해한 슬픔에 관한 1831의 보고서’를 읽고

반송여자중학교 2학년 김도희

삶에는 슬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된다. 예쁜 꽃들이 가득한 봄에도 언제나 꽃샘추위가 함께한다. 싱그러운 풀내음이 가득한 여름에도 지독한 장마가 함께하며, 따뜻한 단풍으로 가득한 가을에도 나무의 잎들은 떨어지고, 맘을 설레게 하는 찬 냄새로 가득한 겨울에도 세상은 언다. 이렇듯 기쁜 일이 있다면 슬픈 일도 생기는 것이 이 냉정한 세계의 법칙이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도 슬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겪고 있다. 주인공 현수는 5년 전 바다로 놀러 간 여름휴가에서 동생 혜진이를 잃었다. 혜진이의 실종 이후 현수네 가족은 큰 슬픔에 빠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엄마는 약과 술에만 의지해 겨우 살아가고, 아버지는 혜진이를 찾으려 늘어난 빚에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만 하며 살아간다. 현수는 잦아든 부모님의 부재에 스스로의 존재를 지우고 유명처럼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 선택은 현수가 아동 청소년 돌봄센터에서 만나게 된 수민이와 서선생님, 개를 만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점차 스며들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일상이 되어간다.

한편, 이 시기에 심장병을 앓고 있던 개가 죽으면서 수민이와 서선생님, 현수는 개의 장례를 위해 바다로 가게 된다. 그 바다는 현수네 가족이 다 함께 갔던 마지막 여름휴가의 바다였다. 현수네 가족의 비극이 시작된 장소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현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직면한다. 그 후 현수는 혜진이가 실종된 장소인 호텔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현수는 잊고 있던, 잊고 싶었던, 잊어야만 했던 기억 속의 마지막 혜진이의 모습을 떠올리고 혜진이의 유골을 바닷가에서 찾게 된다. 그 후 현수는 ‘어둡고 폭풍우 치던 밤이었어’라고 작게 속삭이며 이 책은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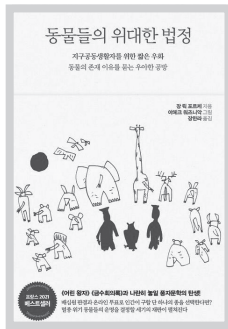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세상에는 진짜 ‘슬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슬픔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삶을 이루는 슬픔의 양은 보존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삶에는 ‘행복 질량 보존의 법칙’도 존재할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슬픔을 다 겪었다면 그 후로는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겪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슬픔을 겪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쳤을 것이다.

그래도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절대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슬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슬픔은 당연하게도 한정적일 테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행복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슬픔을 겪고 난 후의 우리는 수소와 탄소처럼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 현수처럼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우리가 되어 앞으로 찾아올 슬픔을 더 강하게 이겨낼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자신의 삶이 슬픔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을 읽고 언젠가 자신에게도 다가올 행복을 바라보며 절대 쪼개지지 않는 ‘나’가 되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강인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어둡고 폭풍우 치던 밤이었어’라고 작게 속삭이던 현수처럼 자신의 슬픔을 이겨내고 담담히 자신의 행복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 인간입니다.”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을 읽고

마산여자중학교 3학년 백서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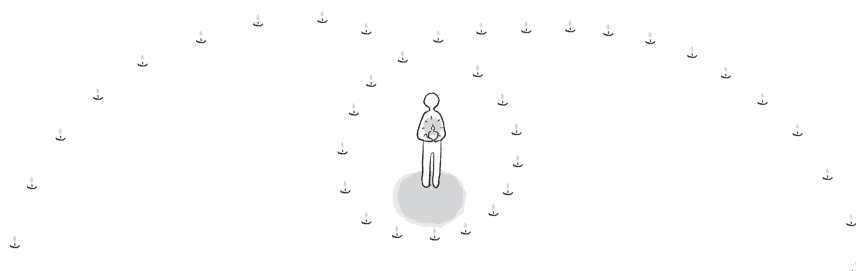
얼마 전 학교에서 국어 수업을 통해 장 혁 포르케의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이란 책을 읽게 되었다. 솔직히 나는 평소에 관심 있는 책들만 골라 읽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 도서에는 별다른 기대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얼마 후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 책을 또 발견하게 되어 다시 한번 읽어보니 전에 읽었을 때보다 더 깊게 내용에 대해 집중할 수 있었다.

먼저 이 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법정에서 각각 자신들이 인간들에게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책의 저자인 장 혁 포르케는 냉소적인 사회에 비평을 퍼붓고, 최근에는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비평가이자 작가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런지 책 중간중간에서 환경과 동물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과 이기적인 면을 비판하는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재판의 시작으로 한 수리부엉이가 등장하는데, 재판장은 수리부엉이에게 인간이 왜 당신 종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변론하라고 한다. 나는 이 말이 충격적이었다. 이런 재판이 열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한 동물 종의 존재 유무가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냐 안되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싶었다. 그리고 재판장과 사람들 모두 이런 행동이 당연하다는 듯이 재판을 이어 나가는 것도 놀라웠다.

수리부엉이 다음으로 담비, 갯지렁이, 유럽 칼새 등 총 9마리의 동물들이 각각 차례대로 자신이 인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다.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 왔는지 알게 되었다. 인간들이 조금만이라도 더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었더라면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 인간들에 나도 포함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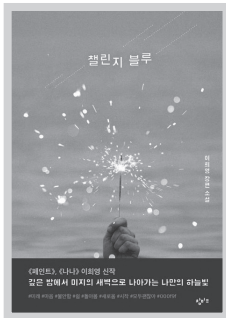
이 책이 내게 가장 많은 깨달음을 주는 부분은 개구리가 마지막으로 인간들에게 내뱉은 말이었다. 개구리는 판결의 시간 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이렇게 재판을 열긴 했지



만, 눈에 훤히 보였을 게 분명한데도 미처 보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야말로, 오로지 인간이야말로 지구의 생활 환경을 맹목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맞는 말이었다. 지구에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치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이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동물들이 인간에게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으니 동물 입장에서선 정말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건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아닐까?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문장이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마냥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느꼈다. 처음엔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가, 점점 고마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도 느껴졌다. 내가 동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 때 여러 동물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말했던 대사들이 정말 인상 깊었다. 비록 소설에서 했던 말이긴 하지만 ‘만약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라고 느꼈다.

이 책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내 삶에만 집중했지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생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북이가 한 말처럼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를 끊임없이 채신하며, 조율하고 또다시 조율하는 법을 말이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동물들이 법정을 떠나는 장면이 있는데, ‘어쩌면 미래에 지구를 떠나가는 동물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미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이다.



그리데이션

‘챌린지 블루’를 읽고

경남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정영하

중학교 때 이희영 작가님의 「페인트」를 읽고 참신한 설정과 개성 또렷한 인물들을 접하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도 글을 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 청소년 문학은 오랜만이였다. 3년이 지나 서점에서 작가님의 신작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꺼내 들었다. 디지털 펜으로 그린 듯 오차 없이 깔끔한 선과 계산된 것만 같은 각도로 선보였던 「페인트」의 표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에 놀랐다. 잔잔한 물가의 한 장면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파스텔톤의 표지에 홀리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나 상반된 분위기였기에 작가님이 풀어내실 새로운 이야기에 강하게 이끌렸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챌린지 블루, 파랑은 색 스펙트럼에서 가장 차갑지만, 다양한 음영으로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색이다. 전 세계적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색이기도 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도 푸른 계열이다. 연하게 어른어른하는 색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묘하게 자유로운 느낌을 받는다. 마음이 복잡하고 머릿속이 시끄러울 때면 쪽빛 바다에 가곤 한다. 그러나 이런 나와 달리 주인공 ‘바림’은 특별하게 여기는 색이 없는 듯하다. 바림은 어린 시절부터 미술을 좋아하여 입시 미술에 뛰어들었지만 손을 다쳐 시골집으로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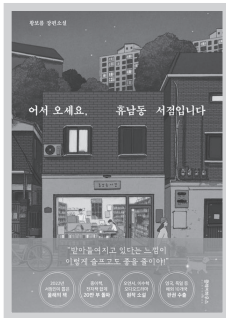
책은 어린 시절 추억이 묻은 시골에서 바림이 겪는 자신과 미술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그리고 있다. 온갖 미술 용어를 쏟아내며 주변을 전문적인 미술가의 시선을 분석하듯 바라보지만, 정작 예술가가 가지는 색 자체에 대한 설렘은 이미 색이 바랜 것처럼 보인다. 좋아하는 일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무감각하게 행하는 모습이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 마지않던 일에 더 이상 설렘과 즐거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나는 아직 어떤 일에 반드시 하고자 하는 확신을 가질 만큼 설렌 적이 없다. 그렇기에 그 일을 하며 오는 정체기와 상실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바림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에 공감할 수 있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에, 바림의 감정에 동화될 수 있었다. 그 애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것을 두려워했다.

책의 목차는 다양한 색의 이름을 담고 있다. 색의 행렬을 따라가다 보면 바림의 마음을 느낄 수 있

다. ‘램프블랙’은 램프의 그늘음을 재료 삼아 만든 색이다. 타다 못해 새카만 재가 되어버린 바람의 속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이름이다. ‘세피아’는 불안이라는 재앙이 덮쳐오기 전, 태풍의 눈 속에 서 있는 느낌을 주는 흑갈색이다. 바람은 안고 있는 얽힌 마음과 걱정을 미뤄두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 한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안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바람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친한 친구 해미에게 여태껏 가지고 있던 부러움과 질투를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불안의 소용돌이를 모른척하려 했으나, 결국은 자신이 그 중앙에 서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다음 장인 ‘카키’는 ‘먼지’라는 이름의 유래처럼,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과감하게 빛나 보이는 해미를 떠올리며 자신을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바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더불어 목차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 어둡고 탁한 색 계열에서 점차 밝은색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수’의 존재가 바람에게 미치는 영향인 것 같다. 수는 순수하고 온전하게 그림과 색을 사랑하던 유년 시절 바람의 잔상인 듯하다. 목차 속 색채의 그라데이션은 무의식 중에 남아있던 또 다른 나인 수를 만나고 서서히 자신을 받아들이며 변화하는 바람을 보여준다.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며, 이 시기에 가장 환하게 빛난다는 말을 덧붙여 응원한다. 그러나 그 빛은 곧게 뻗어나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살아낸 시간이 한없이 적음에도 학생들은 선택과 집중을 모질게 요구받는다. 사회에서 정해놓은 ‘최적의 길’ 중 하나만을 목표로 정하여 그 이상적인 방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기를 바란다. 바람 또한 그렇다. 정해진 원칙대로 그려야만 하는 입시 미술에 뛰어들며 자신만의 색을 내지 못한다. 자유롭고 산뜻하던 바람의 그림에 붓질의 공식을 대입하며, 바람의 시야를 한정하고 통제한다. 이제 바람에게 ‘상상력’은 그저 정형화된 공모전의 제시 주제일 뿐이다. 자유로움이 필요한 부분에서조차 이미 정해진 방법 내에서의 선택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방식은 바람의 색을 팔레트에서 지워버리고, 무궁무진하던 목표를 하나로 줄여버린다.

이 책을 읽으며 바람이 자신의 유년 시절 환상과 마주하고 성장하는 모습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것은 이모 여울이었다. 여울을 보며 바람직한 어른,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위험하고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눈을 가리고 막는 것보다는, 도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역할이라 생각한다. 진로가 도중에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세상 어느 사람이 하나만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갈구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그 일이 앞으로의 삶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큰 부담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진로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지,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고 이야기를 재단하는 사회 분위기가 변화되었으면 한다. 여울의 말마따나, 학생들은 아직 어리다. 어리기에 가질 수 있는 무모하고 용기 있는 도전에 믿음과 응원을 받고 싶다. 나도 바람이 자신만의 파랑, ‘챌린지 블루’를 찾아낸 것처럼 나만의 색을 찾아 캔버스에 자유롭게 그려내고 싶다.



일상과 책과 커피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를 읽고

김해울하고등학교 2학년 정재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슬프고도 좋을 줄이야!” 많은 청소년 선정 도서 중 이 책을 고른 것은 뒤표지에 적혀 있던 이 글귀였다.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길래 슬프고도 좋은 걸까?’ 궁금하여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서점이 없는 마을은 마을이 아니다. 스스로 마을이라 부를 수는 있겠지만 영혼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자신도 알 것이다.” 닐 게이먼이라는 소설가가 한 말인데 정말 공감하는 말이다. 평범한 마을 이더라도 서점이 있다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예전에 서울에 갔었을 때 놀라웠던 점은 지하철역마다 서점이 하나씩 있다는 점이었다. 비록 휴남동 서점처럼 분위기 있는 서점은 아니더라도 역마다 서점이 있는 것은 신기하였다. 정보와 문화가 모이는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서울에 서점이 많은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동네에도 휴남동 서점같이 작은 책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는 책 냄새와 분위기를 좋아한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같은 대형서점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유의 분위기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 영주가 서점을 여는 장면이 나오는데 서점의 한 편에서 서점을 둘러보며 준비하는 영주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다. 창문을 열자, 밤 동안 쌓인 책 냄새와 밤 냄새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다. 책이 가득 꽂힌 책장에는 뜨거운 햇살이 들어오며 나른하고 몽환적인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샌가 나도 휴남동 서점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든다. 배경과 상황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쉽게 책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휴남동 서점은 책도 있지만 커피도 있다. 처음에는 일어났던 커피에 민준이 서서히 진심이 되고 자신의 속마음과 고민을 커피에 풀어낸다. 나는 커피가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로스팅하는 방법을 아는가? 생커피콩에 뜨거운 열을 가해 건조한 후 커피콩에 수분함량을 조절하기 위해 뜸을 들이고 마지막으로 원두의 온도를 낮추어 더 이상의 로스팅이 진행되지 않게 한다. 이 과정에서 원두를 볶는 시간, 온도, 수분함량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작은 차이로 원두의 맛은 천차만별로 바뀐다. 사람의 인생도

로스팅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종족이더라도 태어난 나라, 언어, 주변 환경, 교육 등에 따라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진다. 책 속 민준은 휴남동 서점에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열을 받고 로스팅되는 커피콩과 같았다. 로스팅이 잘되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식혀주지 않으면 원하는 맛이 나오지 않는다. 민준에게는 식혀주는 시간이 필요했다. 대학 합격이라는 첫 단추를 끼운 후로 그다음, 다음 단추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래서 민준은 서점에 온 후로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볶아지는 것만이 로스팅이 아니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책을 읽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독서 토론을 하는 부분에서는 나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토론하는 기분도 들었다. 배경이 서점이니만큼 다양한 책과 이벤트를 하는데 북토크나 강의, 토론 등의 내용이 세세하게 묘사되어 등장인물들과 함께 책을 읽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170쪽에서 「일하지 않을 권리」를 나도 읽고 함께 토론에 참여해 봤다. 책 속에는 총 9명의 사람이 토론에 참여하는데, 나이와 성별, 직업 모두 다양한 사람 9명이었다. 그렇기에 같은 문장을 읽더라도 생각은 모두 달랐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었고 반대의 의견도 있었다. 비록 내 생각과 의견을 말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분위기 봐서 슬쩍 치고 들어오는 방식인 이 독서 토론에 알맞다고 생각한다.

책 속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은 다들 하나씩 자신만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휴남동 서점에 오면서 서서히 고민이 해결된다. 휴남동의 ‘휴’ 자는 쉴 休(休) 자이다. 휴식을 취하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돌아볼 수도 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도 있다. 휴남동 서점은 하나의 안식처로서 사람들에게 휴식을 나눠주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다.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지 못한다. 항상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으려 한 적이 없다. 나는 혼자서 해결하면 남도 편하고 나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 책 속에서 영주가 힘이 들거나 위태로울 때 항상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었다. 영주뿐만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며 힘든 일을 해결했다. 너무 혼자서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주변에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며 영주와 민준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고 나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나도 휴남동 서점처럼 어떤 한 무리에 받아들여진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끝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도움을 준 휴남동 서점의 등장 인물에게 감사를 표한다.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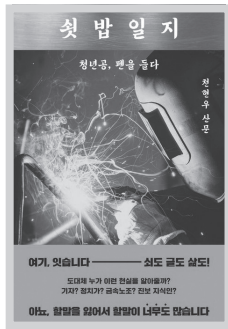
글 부문
일반

경상남도교육감상



일반 대상

052 쇧뵡에서 글뵡을 먹기까지, 청년 노동자의 생생한 노동 현장 이야기
진주시 안현진



첫밥에서 글밥을 먹기까지, 청년 노동자의 생생한 노동 현장 이야기

‘첫밥일지’를 읽고

진주시 안현진

‘청년공, 팬을 들다’라는 문구에 이끌려 책을 펼쳤다. 마산, 신포동, 어시장이란 단어가 첫 장에 나왔다. 얼른 저자 프로필로 돌아갔다. 1990년 마산에서 태어났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나와 같은 고장에서 나고 자란 동년배구나! 호기심에 읽기 시작한 책은 며칠 동안 마음을 무겁게 했다. 어린 분명 같은 나이에 마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도 나도 학생이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동시대에 살고 있었다.

지명과 상호가 그대로 나와서 여기가 어디더라 기억을 더듬으며 읽었다. 내가 지나가면서 본 공장 과 저자가 일했던 공장은 전혀 다른 곳이었다. 1970~80년대의 노동 현장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 하청의 하청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한동안 이 책만 생각났다. 나의 유년과 학창 시절이 있는 창원, 마산의 민낯을 보는 것만 같았다.

수능을 치고 친구와 함께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였다. 그마저도 한 달 하고 그만두었다. 손이 느려 반장 언니에게 눈치를 많이 받았다. 그래도 생산 라인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들은 다들 친절하고 좋았다. 무엇보다 식당 밥이 맛있었다. 이런 기억이 철없게 느껴질 정도로 현장 노동은 달랐다. 내가 경험 삼아 아르바이트를 했던 한 달은 누군가에겐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다. 생각해 보니 내가 일했던 곳은 그나마 환경이 나은 곳이었다. 저자가 겪은 여러 공장과 근무지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산업재해도 나 몰라라 하는 악덕 사장, 몸이 축나는 근로 시간, 최저 시급의 월급…. 나와 다른 20대를 보낸 저자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꾸만 숙연해졌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다. 당시 3년제였던 간호대학을 졸업한 나는 2학년 때 병원으로 간호 실습을 나갔다. 예비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실무를 배우고 직업 의식이 고취되는 시간이었다. 간호 학생이 받는 무시와 차별에 서럽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괜찮았

다. 함께 하는 동기가 있고,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나온 학생들이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곳은 다른 세상이었다. 안전 교육과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소모품처럼 일한다. 현장 실습생의 사고와 죽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될 때 슬프고 안타까웠지만 거기까지였다. 무겁고 어두운 사회의 이면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내 일이 아니라고 여겨서 무심했었다. 책을 읽으면서 열악한 노동 현장에 노출된 청년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갔다.

영화 <다음 소희>도 그래서 봤다.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전주 지역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자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이제 사무직이 된다고 좋아하던 소희가 변해가는 모습을 숨 죽이며 보았다. 소희 친구들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다음 소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관심도 필요하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도 다시 펼쳐 보았다. 현장 실습생들의 죽음에 관한 책이다. 오래전에 사놓고 읽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꽂아만 두었었다. 「씻밥일지」를 읽으면서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세계를 알아야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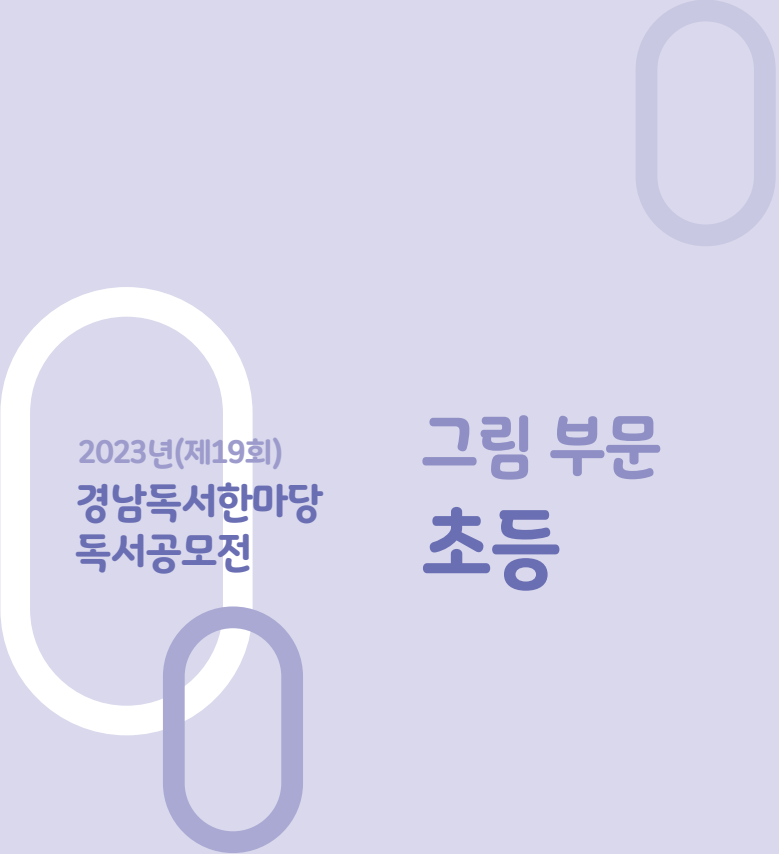
저자는 삶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자 게임 대신 책을 읽기 시작했다. 현장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쓰고, 정치에 대해 읽고 공부하며 팟캐스트를 들었다. 우연한 기회에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저자인 양승훈 경남대 교수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이는 또 다른 인터뷰로 이어진다. 글과 말로서 청년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 용접공으로 씻밥을 먹던 그가 이제는 작가로 글밥을 먹는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부지런히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누군가가 내지 못한 목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씻밥일지」는 90년생 청년 노동자의 생생한 노동 현장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관심을 두도록 만든다. 도리스 레싱은 “작가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하며, 특히 동시대의 문제를 폭로하고 경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자의 글은 자신의 경험담이자 누군가를 위한 목소리가 되었다. 우리가 읽고 써야 하는 분명한 이유기도 하다.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초등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대상

- 058 지구를 지키자!
남지초등학교 2학년 양승민
- 059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지구
석동초등학교 5학년 엄세아

경상남도교육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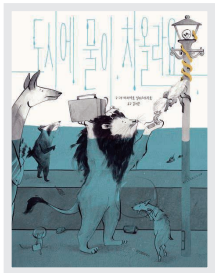


초등 최우수

- | | |
|---|---|
| 060 무지개 방
물금초등학교 3학년 강민승 | 064 플라스틱 인간 먹방
문선초등학교 5학년 고경탁 |
| 060 하트보다 우정!
통영초등학교 1학년 곽지안 | 065 지구와의 약속
오봉초등학교 5학년 김가영 |
| 061 플라랜드
계창초등학교 1학년 김바론 | 065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가좌초등학교 5학년 박솔민 |
| 061 나만의 용기 충전소
용덕초등학교 3학년 박예령 | 066 터치 한 번에, 물 한 방울
김해율산초등학교 4학년 송채준 |
| 062 너의 부리는 안녕하니?
월영초등학교 2학년 이윤지 | 066 깡통 속 별이
진동초등학교 5학년 정다교 |
| 062 미세플라 식당
진동초등학교 1학년 임지민 | 067 꺼지지 않는 불꽃(노동 운동의 시간)
아주초등학교 6학년 정지우 |
| 063 기후 변화는 가끔 홍수를 일으켜
가고파초등학교 3학년 전주원 | 067 제발 동물들을 해치지 마!
진례초등학교 5학년 팽연주 |
| 063 플라스틱 물고기
수월초등학교 1학년 조은우 | 068 플라스틱 인간들의 집
호암초등학교 4학년 황주아 |
| 064 사라져라 플라스틱
대암초등학교 3학년 황태민 | 068 오리 부리의 일상
덕산초등학교 5학년 황지우 |

지구를 지키자!

선정도서 「도시에 물이 차올라요」
남지초등학교 2학년 양승민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지구

선정도서 「플라스틱 인간」
석동초등학교 5학년 엄세아





무지개 방

선정도서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물금초등학교 3학년 강민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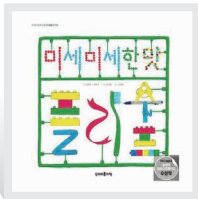
하트보다 우정!

선정도서 「모모와 토토 하트하트」
통영초등학교 1학년 곽지안



플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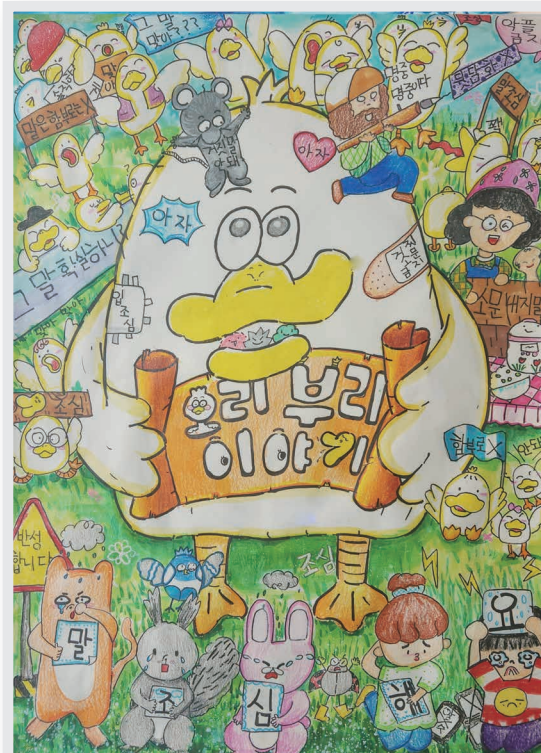
선정도서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
계창초등학교 1학년 김바론



나만의 용기 충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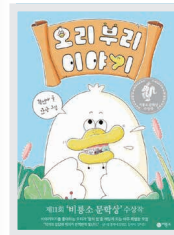
선정도서 「용기 충전소」
용덕초등학교 3학년 박예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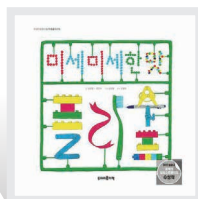
너의 부리는 안녕하니?

선정도서 「오리 부리 이야기」
월영초등학교 2학년 이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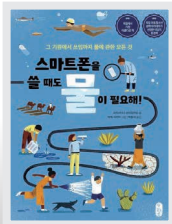
미세플라 식당

선정도서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
진동초등학교 1학년 임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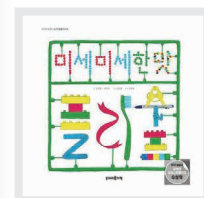
기후 변화는 가끔 홍수를 일으켜

선정도서 「스마트폰을 쓸 때도 물이 필요해」
가고파초등학교 3학년 전주원



플라스틱 물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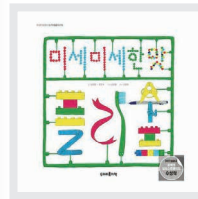
선정도서 「미세미세한 맛 플라스프」
수월초등학교 1학년 조은우





사라져라 플라스틱

선정도서 「미세미세한 맛 플라스프」
대암초등학교 3학년 황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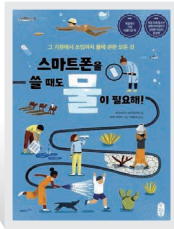
플라스틱 인간 먹방

선정도서 「플라스틱 인간」
문선초등학교 5학년 고경탁



지구와의 약속

선정도서 「스마트폰을 쓸 때도 물이 필요해」
오봉초등학교 5학년 김가영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선정도서 「11월 13일의 불꽃」
가좌초등학교 5학년 박솔민





터치 한 번에, 물 한 방울

선정도서 「스마트폰을 쓸 때도 물이 필요해」
김해율산초등학교 4학년 송채준



깡통 속 별이

선정도서 「애니캔」
진동초등학교 5학년 정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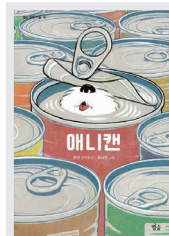
꺼지지 않는 불꽃 (노동 운동의 시간)

선정도서 「11월 13일의 불꽃」
아주초등학교 6학년 정지우



제발 동물들을 해치지 마!

선정도서 「애니캔」
진례초등학교 5학년 팽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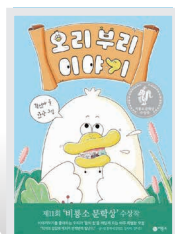
플라스틱 인간들의 집

선정도서 「플라스틱 인간」
호암초등학교 4학년 황주아



오리 부리의 일상

선정도서 「오리 부리 이야기」
덕산초등학교 5학년 황지우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청소년

경상남도교육감상

청소년 대상

070 내가 원하는 길이란...
단성중학교 3학년 남미진

경상남도교육감상

청소년 최우수

071 모두의 서점
거제고등학교 1학년 손여원

071 마리오네뜨
마산여자중학교 3학년 이보연

072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희망으로 극복하는 현수
한다사중학교 1학년 정서윤

072 인생여로
호암중학교 3학년 최아인

내가 원하는 길이란...

선정도서 「챌린지 블루」
단성중학교 3학년 남미진



모두의 서점

선정도서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거제고등학교 1학년 손여원



마리오네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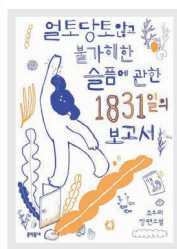
선정도서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
마산여자중학교 3학년 이보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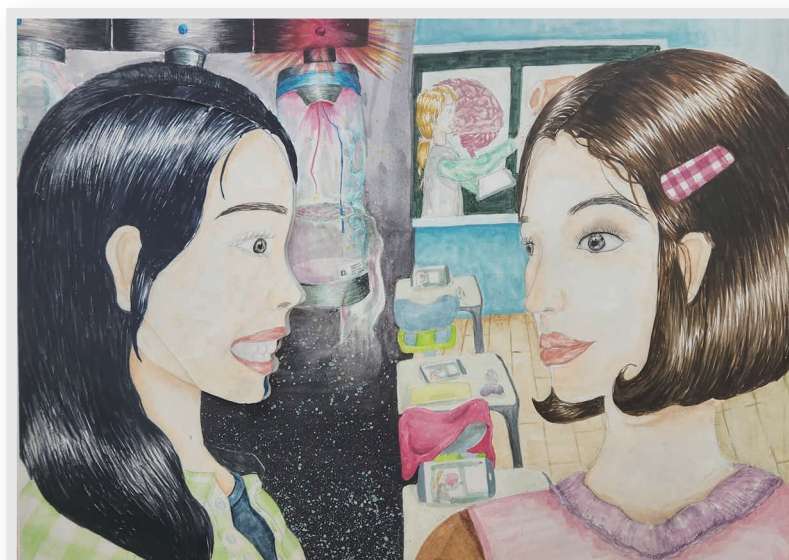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희망으로 극복하는 현수

선정도서 「얼토당토않고 불가해한 슬픔에 관한 1831일의 보고서」
한다사중학교 1학년 정서윤



인생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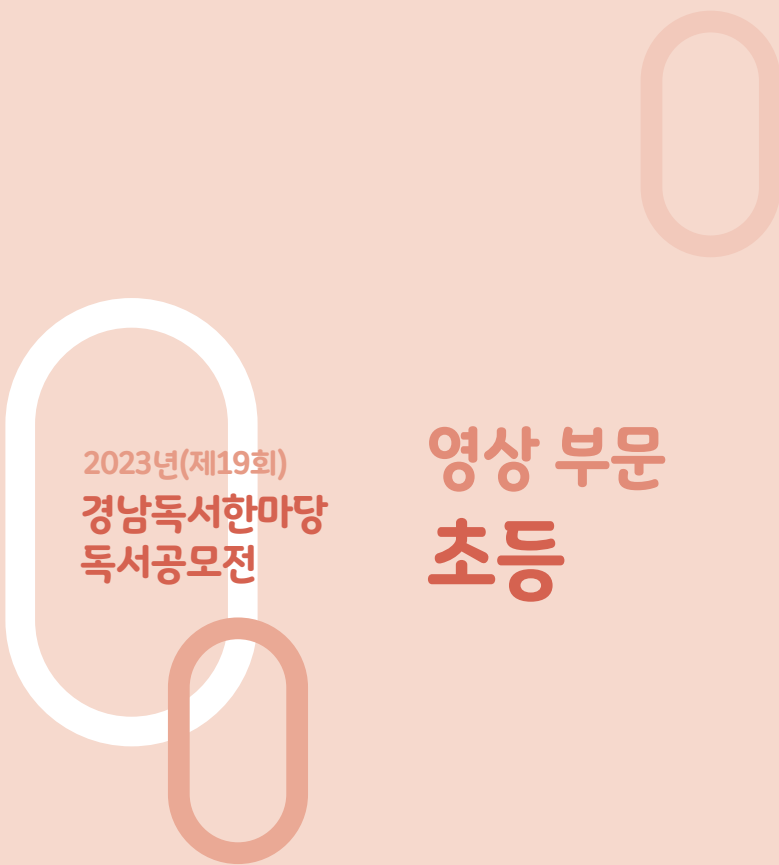
선정도서 「특이점」
호암중학교 3학년 최아인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영상 부문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영상 부문
초등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대상

- 076 플라스틱 인간! 이제 우리 헤어져!
창녕성산초등학교 6학년 권서현, 엄재원, 이소윤, 조이레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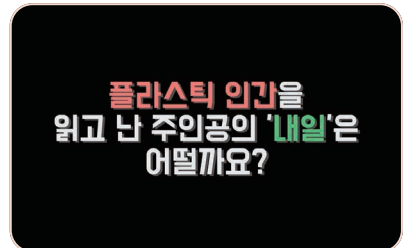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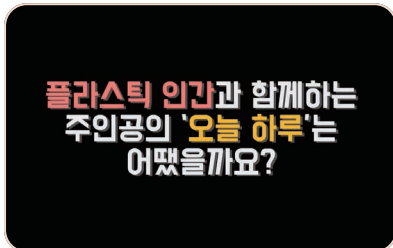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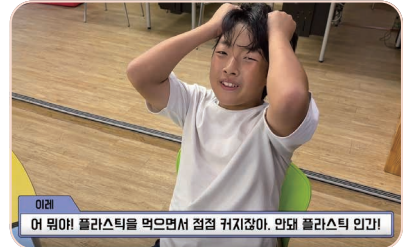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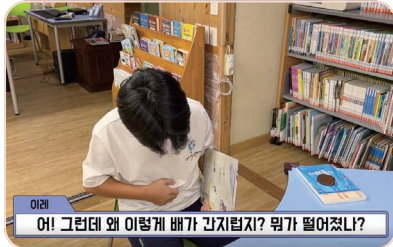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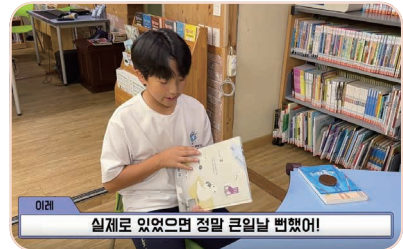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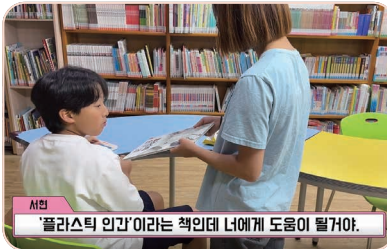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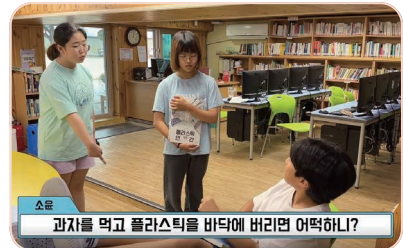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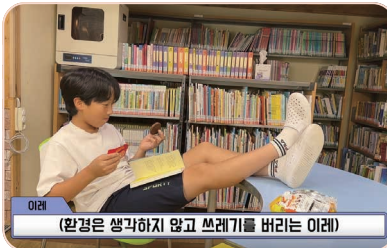
- 077 우리의 지구를 집어삼킨 플라스틱
반송초등학교 6학년 김소희



플라스틱 인간! 이제 우리 헤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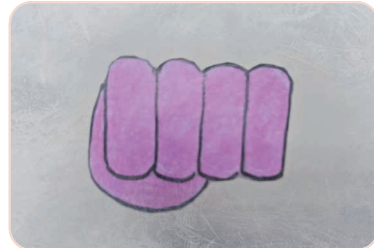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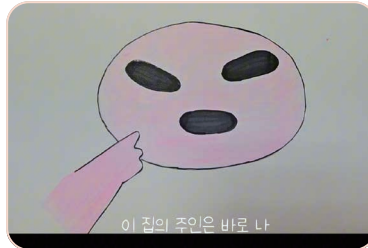
선정도서 「플라스틱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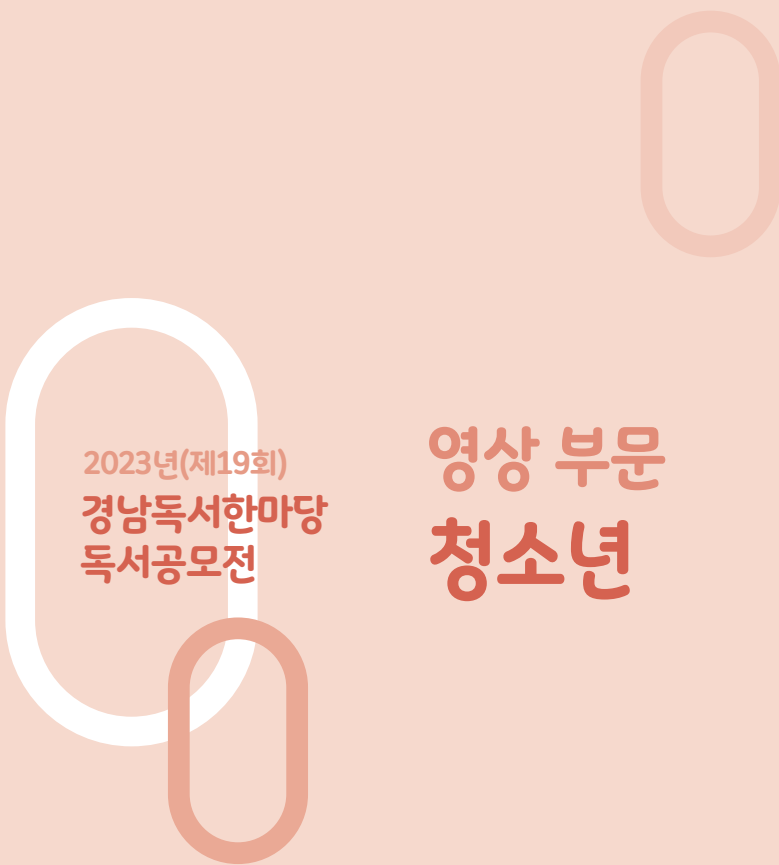
창녕성산초등학교 6학년 권서현, 엄재원, 이소윤, 조이레



우리의 지구를 집어삼킨 플라스틱

선정도서 「플라스틱 인간」
반송초등학교 6학년 김소희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영상 부문 청소년

경상남도교육감상



청소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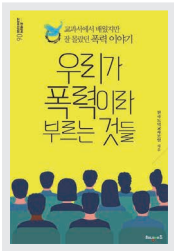
- 080 폭력의 악순환
가조중학교 1학년 김민서, 변시연, 이해주, 하연아, 허규빈

경상남도교육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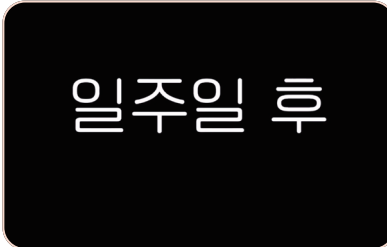
청소년 최우수

- 081 제시카의 중간고사
창선중학교 2학년 박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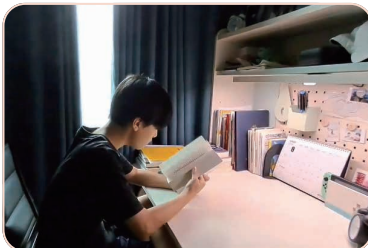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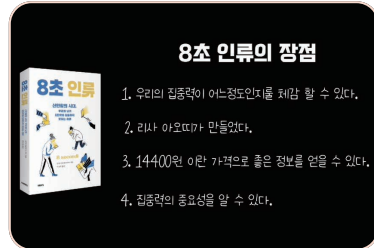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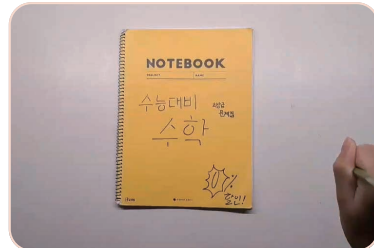
폭력의 악순환

선정도서 「우리가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들」
가조중학교 1학년 김민서, 변시연, 이해주, 하연아, 허규빈



제시카의 중간고사

선정도서 「8초 인류」
창선중학교 2학년 박시원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운영 결과

독서 공모전

- 공모 부문: 글 부문, 그림 부문, 영상 부문
- 공모 기간: 2023. 9. 1.(금) ~ 9. 27.(수)
- 접수 결과: 총 27,009편

구분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	계
글 부문	13,691	2,129	149	15,969
그림 부문	10,082	726		10,808
영상 부문	67	165		232
계	23,840	3,020	149	27,009

- 심사 결과: 828편, 882명
 - 종합상(대상 및 최우수상): 55편, 62명
 - 지역상(우수 및 장려, 입선): 773편, 820명
 - 단체상: 10개교(관)
 - 지도 교사상: 1명

책 꾸러미 지원

- 운영 기간: 2023. 4. 27.(목) ~ 9. 27.(수)
- 운영 기관: 한려초등학교 등 27개교
- 운영 내용: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책 꾸러미 지원
- 운영 실적: 4,237명



구산초등학교



김해봉황초등학교



산청초등학교



삼현여자중학교



양주중학교



웅천중학교

수상 작품 전시

- 운영 기간: 2023. 5. 9.(화) ~ 12. 1.(금)
- 운영 기관: 충무공초등학교 등 56개교(관)
- 운영 내용: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수상작품 순회 전시
- 운영 실적: 27,182명



거제도서관



거제장평중학교



김해삼문고등학교



남강초등학교



남상초등학교



대원초등학교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밀양고등학교



용산초등학교



죽림초등학교



지세포중학교



합천평화고등학교

작가와
의
만남

- 운영 기간: 2023. 5. 19.(금) ~ 8. 21.(월)
- 운영 기관: 위성초등학교 등 26개교(관)
- 운영 내용: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작가와의 만남
- 운영 실적: 1,576명



권오상 (일운초등학교)



김미희 (가양초등학교)



김소연 (호암중학교)



김슬기 (자은초등학교)



김지선 (죽림초등학교)



선시아 (평산초등학교)



신승미 (김해삼방고등학교)



안수민 (주촌초등학교)



윤성근 (양산도서관)



윤성근 (창녕도서관)



윤자명 (수양초등학교)



은경 (상주초등학교)



이동연 (합천초등학교)



이진하 (아주초등학교)



이창욱 (창선중학교)



정은주 (가고파초등학교)



조우리 (통영중앙중학교)



진수경 (대의초등학교)



진수경 (위성초등학교)



천현우 (경남정보고등학교)



최소희 (무동초등학교)



홍우리 (계동초등학교)



홍우리 (배영초등학교)



황선애 (부북초등학교)



황선애 (월촌초등학교)



황선애 (자여초등학교)

2023년(제19회)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형식/주제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간다아아!	코리R. 데이버	오늘책	그림책(자아/도전/용기)
2	나에겐 비밀이 있어	이동연	올리	그림책(자존감)
3	나의 첫 심부름	홍우리	키다리	그림책(감정/마음/감정변화)
4	모모와 토토 하트하트	김슬기	보림	그림책(소통/관계)
5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	김지형 · 조은수	두마리토끼책	그림책(환경)
6	우리 집 식탁이 사라졌어요!	피터 H. 레이놀즈	우리학교	그림책(가족/공동체)
7	함께 줄넘기	진수경	봄개울	그림책(관계/이해/공감)
8	도시에 물이 차올라요	마리아 몰리나 (마리아호 일러스트라호)	위즈덤하우스	그림책(환경/협동)
9	오리 부리 이야기	황선애	비룡소	동화(진실/말의 힘)
10	용기 충전소	선시아	잇츠북어린이	동화(용기/격려)
초등 고학년 (4~6학년)				
1	서프라이즈 가족	김미희	단비어린이	동화(가족애)
2	스마트폰을 쓸 때도 물이 필요해!	크리스티나 슈타인라인	책읽는곰	비문학(환경)
3	털이 뭐길래!	이진하	그레이트북스	문학(자존감/자기수용)
4	11월 13일의 불꽃	윤자명	풀빛	동화(역사/인권)
5	기소영의 친구들	정은주	사계절	동화(죽음/관계/우정)
6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김지선	시금치	동화(예술/영화감상)
7	선우와 나무꾼	최소희	봄별	동화(용서/관계회복/친구)
8	애니캔	은경, 유시연	별숲	동화(생명존중/반려동물)
9	열두 살 경제학교	권오상	카시오페아	동화(경제/금융)
10	플라스틱 인간	안수민	국민서관	그림책(환경/탄소중립)
청소년				
1	얼토당토않고 불가해한 슬픔에 관한 1831일의 보고서	조우리	문학동네	문학(가족애/회복)
2	스타피시	리사 핏스	아르테	문학(성장/자존감)
3	유배도 예술은 막을 수 없어	신승미, 김영선	다른	비문학(역사/인물/역사)
4	특이점	김소연	서유재	문학(SF/인공지능/미래)
5	한입에 씹씩 편의점 과학	이창욱	휴머니스트(곰곰)	비문학(교양/생활과학)
6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	장 퍽 포르케	서해문집	비문학(환경/생태/멸종위기)
7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클레이하우스	문학(소통/위로/관계)
8	우리가 폭력이라 부르는 것들	전국도덕교사모임	해냄에듀	비문학(사회문제/폭력/차별)
9	챌린지 블루	이희영	창비	문학(성장/정체성/치유)
10	페퍼민트	백은유	창비	문학(돌봄/가족애/회복)
일반				
1	8초 인류	리사 이오피	미래의창	비문학(과학/교양/뇌과학)
2	기후미식	이의철	위즈덤하우스	비문학(환경/생태/기후)
3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	곰출판	비문학(과학/진화론/과학자)
4	씻밥일지	천현우	문학동네	문학(청년/노동)
5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창비	문학(인생/가족)
6	언어를 디자인하라	유영만, 박용후	쌤앤파커스	문학(회화/대화)
7	위로의 미술관	진병관	빅피시	비문학(예술/대중문화/미술)
8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김영민	어크로스	비문학(인문/정치/철학)
9	하얼빈	김훈	문학동네	문학(위인/역사)
10	헌책방 기담 수집가	윤성근	프시케의 숲	문학(인문)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5년(제1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평	이오덕	효리원
2	엄마는 거짓말쟁이	김리리	다림
3	심청가	이현순	초방책방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문제아	박기범	창비
2	작은 씨앗이 꾸는 꿈, 숲	이성아	푸른나무
3	(초등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알쏭달쏭 직업이야기 51	김한준	을파소
청소년 (중학생)			
1	지붕 낮은 집	임정진	푸른숲
2	나비에 사로잡히다	샤먼 앵트 러셀	북폴리오
3	마사이전사 레마솔라이	조지프 레마솔라이 레쿠톤	황소자리
청소년 (고등학생)			
1	나의 생명이야기	황우석	효형출판
2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조항범	예담
3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솔
일반			
1	사람풍경	김형경	아침바다
2	미쳐야 미친다	정민	푸른역사
3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문예출판사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6년(제2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수상한 선물가게	류가미	국민서관
2	양파의 왕따일기	문선이	파랑새어린이
3	누리아 누리아	양귀자	문공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나의 바이올린	수지 모건스턴	주니어김영사
2	내일을 빼앗지 말아요	도미니크 디메이	크레용하우스
3	어린이를 위한 선물	스펜서 존슨	랜덤하우스중앙
청소년 (중학생)			
1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샬린저	민음사
2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두레아이들
3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문학과지성사
청소년 (고등학생)			
1	천국에서의 하루	권대응	홍익출판
2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	21세기북스
일반			
1	야생초 편지	황대권	도솔
2	행복에 이르는 길	폴턴 J. 신	해누리
3	천국의 열쇠	A. J. 크로닌	청목
4	한국신화의 비밀	조철수	김영사
5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야마자키 후미오	상상미디어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7년(제3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똥장군	김정희	한림
2	도깨비 아버지	이상배	국민서관
3	일기도서관	박효미	사계절
4	전학 간 윤주 전학 온 윤주	장주식	문학동네
5	무너미마을 느티나무 아래서	이오덕	한길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나 좀 내버려둬	박현진	천둥거인
2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	오자와 아키미	북뱅크
3	빌리 엘리엇	벨린 버지스	프로메테우스
4	살롯의 거미줄	엘윈 브룩스	시공주니어
5	초정리 편지	배유안	창작과비평사
청소년 (중학생)			
1	가자에 띄운 편지	발레리 제나티	낭기열라
2	곰보빵	이철환	꽃삽
3	주머니속의 고래	이금이	푸른책들
청소년 (고등학생)			
1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	푸른숲
2	부의 미래	앨빈 토플러	청림
일반			
1	과학해서 행복한 사람들	손혜주 외	사이언스북스
2	배려	한상복	위즈덤하우스
3	별처럼 태어났으니 눈부시게 사랑하라	정연	고니
4	천개의 공감	김형경	한겨레출판
5	청소부 밥	토드 홉킨스	위즈덤하우스
6	행복한 사람 타샤튜더	타샤 튜더	월북
7	호미	박완서	열림원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8년(제4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황소와 도깨비	이상	다림
2	도서관에 간 사자	미셸 누드슨	웅진씽크빅
3	늦어도 괜찮아 막내 황조롱이야	이태수	우리교육
4	바나나 필통속의 공쥐	이미애	행복한아이들
5	꿀찌가 받은 상	김용인	영림카디널
6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권윤덕	창비
7	우리 독도에서 온 편지	윤문영	계수나무
8	내 동생 싸게 팔아요	임정자	아이세움
9	금순아, 노을자	이상권	창비
10	아름다운 꿀찌	이철환	주니어랜덤
초등 고학년 (4~6학년)			
1	폴코스 침묵화여행	인병선	현암사
2	엄마의 마지막 선물	문선이	파랑새
3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김려령	문학동네
4	천년의 사랑 직지	조경희	대교출판
5	우리 다시 만날 때	송재찬	계수나무
6	나는 무슨 씨앗일까	박효남	샘터사
7	하늘을 나는 교실	에리히 케스트너	시공사
8	명혜	김소연	창비
9	가짜 한의사 외삼촌	최미선	문원
10	다산의 아버지께	안소영	보림
청소년 (중학생)			
1	나무의 죽음	차윤정	웅진지식하우스
2	하늘이 낸 성인을 꿈꾸던 공자 vs 저절로 참 스승이 된 노자	권순이	숨비소리
3	펼떡이는 길거리 경제학	이영직	스마트비즈니스
4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	하페 케르켈링	은행나무
5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솔
청소년 (고등학생)			
1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최정태	한길사
2	우리들의 스캔들	이현	창비
3	데미안	헤르만 헤세	민음사
4	내인생의 스포링캠프	정유정	비룡소
5	모모	미하엘 엔데	비룡소
일반			
1	프레임	최인철	21세기북스
2	비형량의 낮과 밤	김인배	문학세계
3	즐거운 나의 집	공지영	푸른숲
4	철학! 영화를 casting하다	이왕주	효형출판
5	한국의 고집쟁이들	박종인	나무생각
6	바리데기	황석영	창비
7	어린이를 살리는 문학	이오덕	청년사
8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김영사
9	책, 꽃만큼 아름답고 밥만큼 소중하다	이혜화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10	샘에게 보내는 편지	대니얼 고틀립	문학동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9년(제5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친구 도서관	김하늬	한겨레아이들
2	도둑님 발자국	황선미	베들북
3	멀쩡한 이유정	유은실	푸른숲주니어
4	선생님은 모르는게 너무 많아	강무홍	사계절
5	책 읽는 허수아비	마크 킴볼 몰튼	예꿈
6	은비네 시골일기	고정옥	진선북스
7	너 나 우리	선안나	샘터사
8	멋진 여우씨	로알드 달	논장
9	나는 떠돌이 개야	이상교	시공주니어
10	책 먹는 여우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책과 노니는 집	이영서	문학동네어린이
2	랑랑별 때때롱	권정생	보리
3	책읽는 도깨비	이상배	처음주니어
4	나는 진짜 나일까	최유정	푸른책들
5	귀신 고래	김일광	내인생의책
6	우리집 우렁이 각시	이금이	보물창고
7	그 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	현길언	계수나무
8	마르코 폴로의 모험	러셀 프리드먼	두레아이들
9	어린이를 위한 불편한 진실	앨 고어	주니어중앙
10	준비됐지?	김옥	창비
청소년 (중학생)			
1	개밥바라기별	황석영	문학동네
2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오바마 이야기	헤더 레어 와그너	명진출판사
3	스프링벅	배유안	창비
4	나의 권리를 말한다	전대원	뜨인돌
5	꽃피는 고래	김형경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이 일기는 읽지 마세요, 선생님	마가렛 피터슨 해덱스	우리교육
2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문예출판사
3	젊음의 탄생	이어령	마로니에북스
4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이은희	궁리
5	우리는 천사의 눈물을 보았다	박종인 외	시공사
일반			
1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2	마지막 강의	랜디 포시	살림
3	듀이: 세상을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비키 마이런	갤리온
4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	해냄
5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연금술사
6	탐욕의 시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7	내려가는 연습	유영만	위즈덤하우스
8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구중서	책만드는집
9	습지와 인간	김현주	산지니
10	그림 애호가로 가는 길	이충렬	김영사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0년(제6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대머리 사막	박경진	미세기
2	이르기 대장 1학년 나최고	조성자	아이앤북
3	엄마가 사랑하는 책벌레	김현태	아이앤북
4	짧은 귀 토끼	다원시	고래이야기
5	큰 고추 작은 고추	하이타니	양철북
6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요	엘렌사빈	문학동네
7	알몸으로 학교 간 날	타이마르크 르탄	아름다운 사람들
8	베컴머리 힙합 선생님	노혜영	교학사
9	책 속으로 들어간 공룡	송윤섭	주니어김영사
10	싫어요 몰라요 그냥요	이금이	보물창고
초등 고학년 (4~6학년)			
1	숨쉬는 책 무익조	김성범	문학동네
2	살아난다면 살아난다	최은영	우리교육
3	어진이의 농장 일기	신혜원	창작과비평사
4	지구를 지키는 가족	김바다	한림출판사
5	멋지다 우리역사	강명관	주니어김영사
6	마지막 거인	프랑수아 플라스	디자인 하우스
7	맑은 날엔 도서관에 가자	미도리카와 세이지	책과콩나무
8	책 읽어주는 바둑이	이상배	처음주니어
9	불량한 자전거 여행	김남중	창비
10	똥 치우는 아이	김문주	예림당
청소년 (중학생)			
1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브라이언 밀러	서해문집
2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하이타니 겐지로	양철북
3	하늘의 개척자 라이트 형제	러셀 프리드먼	비룡소
4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미래M&B
5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창비
2	살아 있음이 행복해지는 희망 편지	김선규 외	랜덤하우스코리아
3	그건 사랑이었네	한비아	푸른숲
4	시골 똥 서울 똥	안철환	들녘
5	오늘 아침,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클레지오	파랑새
일반			
1	재미	한상복	위즈덤하우스
2	공무도하	김훈	문학동네
3	햇살 한 줌 향기 한 줌	정목일	문학수첩
4	프로이트의 의자	정도연	웅진지식하우스
5	풀밭 위의 식사	전경린	문학동네
6	아버지의 눈물	김정현	문이당
7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오츠수이치	21세기북스
8	덕혜옹주	권비영	다산책방
9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신의진	걷는나무
10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김정운	쌤앤파커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1년(제7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내 친구 조이	표지율	대교출판
2	헨리의 자유상자	엘린 레번	뜨인돌
3	할머니 집에서	이영득	보림
4	책임어주는 로봇	이영득	보림
5	스티커 토끼	가브리엘라 케셀만	책속물고기
6	분황사 우물에는 용이 산다	배유안	파란자전거
7	강치야 독도강치야	주강현	한겨레아이들
8	쫓대기쌈 쫓대기 쌈	최종득	문학동네
9	헨젤과 그레텔은 도형이 너무 어려워	고자현	동아사이언스
10	내 친구는 얼굴색이 달라요	콜레트 엘링스	시공주니어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당산할매와 나	윤구병	휴먼어린이
2	어느날 미란다에게 생긴 일	레베카 스테드	찰리북
3	사계	마르코 심사	우리교육
4	거짓말 학교	전성희	문학동네
5	봉주르 뚜르	한윤섭	문학동네
6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정원각 외	상수리
7	토론하는 교실	여희숙	파란자전거
8	나의 어설픈 영웅 안톤	제임스 말로니	책그릇
9	피타고라스 구출작전	김성수	주니어김영사
10	엄마의 슬픈날	시린 호마이어	문학동네
청소년 (중학생)			
1	불량가족 레시피	손현주	문학동네
2	통세계사	김상훈	다산북스
3	하리하라 미드에서 과학을 보다	이은희	살림
4	판타스틱 걸	김혜정	비룡소
5	길은 학교다	이보라	한겨레출판
청소년 (고등학생)			
1	세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강양구	뿌리와이파리
2	가족 표류기	M.H. 헬롱	양철북
3	맹자	장현근	한길사
4	가족입니까	김해원	바람의아이들
5	소피의 세계	요스타인 가아더	현암사
일반			
1	내 젊은 날의 숲	김훈	문학동네
2	못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박완서	현대문학
3	서재 결혼 시키기	앤 패디먼	지호
4	크로스	정재승 & 진중권	웅진지식하우스
5	죽도록 책만 읽는	이권우	연암서가
6	아름다움은 힘이 세다	페이로 페루치	웅진지식하우스
7	로지코믹스	아포스톨로스 독시아디스	랜덤하우스
8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영웅 열전	이윤기	민음사
9	3분 고전	박재희	작은씨앗
10	부모들이 읽는 아이들 생생심리학	이소라	그리고책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2년(제8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무릎팍지	샤를로트 문드리크	한울림어린이
2	찬다 삼촌	윤재인	느림보
3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시공주니어
4	책 씻는 날	이영서	학교재
5	(이이화 역사 할아버지가 들려주는)발효이야기	이이화	파랑새
6	바다로 가는 은빛 그물	황선미	시공주니어
7	빨강연필	신수현	비룡소
8	지붕이 있는 집	리자통	산하
9	마틸드는 쓰레기 박사	소피세레	크레용하우스
10	내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	정유소영	창비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기묘한 DNA 도서관	하바 아라시	복스마니아
2	마지막 이벤트	유은실	바람의아이들
3	붕구뽕구 붕규야	김문주	예림당
4	소나기 밥 공주	이은정	창비
5	열세 번째 아이	이은용	문학동네
6	완벽한 가족	로드리고 무뇨스 아비아	다림
7	서찰을 전하는 아이	한윤섭	푸른숲주니어
8	우리 그림이 들려주는 사람이야기	박영대	현암사
9	왕실도서관 규장각에서 조선의 보물찾기	신병주, 이해숙	책과함께어린이
10	공자 아저씨네 빵가게	김선희	주니어김영사
청소년 (중학생)			
1	과학자의 서재	최재천	명진출판사
2	가시고백	김려령	비룡소
3	검은 개들의 왕	마운제	문학동네
4	핸드폰이 사라졌다	웬디 하머	개암나무
5	방주로 오세요	구병모	문학과지성사
청소년 (고등학생)			
1	맛있는 햄버거의 무서운 이야기	에릭 솔로서	모멘토
2	괜찮아, 열일곱 살	이나미	이랑
3	조선왕을 말하다	이덕일	역사의아침
4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쌤앤파커스
5	광고천재 이제석	이제석	학교재
일반			
1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	이지성, 정희일	다산라이프
2	안철수의 서재	이채운	푸른영토
3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신정근	21세기북스
4	다 그림이다	손철주, 이주은	이봄
5	내가 걸은 만큼 내 인생이다	강풀 외	한겨레출판사
6	두근 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7	흑산	김훈	학교재
8	공지영의 지리산 행복학교	공지영	오픈하우스
9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스님	쌤앤파커스
10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위지안	예담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3년(제9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경회루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	햇살과나무꾼	비룡소
2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헤더 헨슨	비룡소
3	맛있는 짜장면의 역사	박남정	산하
4	까만 아기양	엘리자베스 쇼	푸른그림책
5	엄마 사용법	김성진	창비
6	옆집 아이는 로봇	한주형	책과콩나무
7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식물이야기	한영식	아이세움
8	장수탕 선녀님	백희나	책읽는곰
9	착한아이 사탕이	강밀아	글로연
10	천개의 바람 천개의 첼로	이세 히데코	천개의바람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굳게 다짐합니다	조경숙	국민서관
2	귓속말 금지구역	김선희	살림어린이
3	기이한 책장수 조신선	정창권	사계절
4	날씨 전쟁	토니 브래드먼	사파리
5	섬마을 스캔들	김연진	살림어린이
6	속담 속에 숨은 수학(단위와 측정)	송은영	봄나무
7	시간 가게	이나영	문학동네
8	아름다운 아이	R.J. 팔라시오	책과콩나무
9	왜 우리는 친구일까?	박성철	서교
10	장바구니는 왜 엄마를 울렸을까	석혜원	풀빛
청소년 (중학생)			
1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	김경집외	꿈결
2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김이윤	창비
3	열혈 수탉 분투기	창신강	푸른숲
4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자음과모음
5	식탁위의 세계사	이영숙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고정욱	애플북스
2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김수영	웅진지식하우스
3	박철범의 공부특강	박철범	북스토리
4	수상한 화가들	박석근	사계절
5	살아있는 귀신	서른	창비
일반			
1	꾸뻏씨의 행복여행	프랑수아 를로르	오래된미래
2	남자의 물건	김정운	21세기북스
3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 준 한마디	정호승	비채
4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하타사와 세이고	다른
5	문명의 배꼽, 그리스	박경철	리더스북
6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존 맥스웰	비즈니스북스
7	삶을 바꾼 만남	정민	문학동네
8	습관의 힘	찰스 두히그	갤리온
9	책은 도끼다	박웅현	북하우스
10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	김용규	웅진지식하우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4년(제10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꼬마 사서 두보	양연주	키다리
2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패트리샤 맥키삭	고래이야기
3	내 뽀스	박종채	키다리
4	단추 마녀의 수상한 식당	정란희	키다리
5	맑은 하늘 이제 그만	이육재	노란돼지
6	멋대로 맘대로 월로	데니즈 브레넌 넬슨 외	찰리북
7	미술관의 초대	수전 베르데	문학동네
8	발레하는 할아버지	신원미	머스트비
9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경림	실천문학사
10	입양아 올리비아 공주	린다 그리바	아름다운 사람들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가족을 주문해 드립니다	한영미	살림어린이
2	게임 파티	최은영	시공주니어
3	국경을 넘는 아이들	박현숙	살림어린이
4	나는 바람이다 1-2	김남중	비룡소
5	나는 투명인간이다	박성철	아이앰북
6	말이 통하는 아이	노여심	주니어김영사
7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햇핑크돌핀스	두레아이들
8	백번 읽어야 아는 바보	김흥식	파란자전거
9	우리 집 쓰레기통 좀 말려줘	태미라	스콜라
10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오진희	웃는돌고래
청소년 (중학생)			
1	남쪽 섬 티오	이케자와 사쓰키	미래인
2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	박지혜	뜨인돌
3	십대를 위한 직업 백과	이랑	꿈결
4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쿠로노 신이치	뜨인돌
5	휴대폰 전쟁	로이스 페터슨	푸른숲주니어
청소년 (고등학교)			
1	벙커	추정경	놀
2	여덟 단어	박웅현	북하우스
3	열여덟 소울	김선희	살림
4	자원봉사도 고민이 필요해	다나카 유	돌베개
5	지구가 뽐났다	남종영	꿈결
일반			
1	7년의 밤	정유정	은행나무
2	감정수업	강신주	민음사
3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림책	최은희	낮은산
4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5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정여울	홍익출판
6	높고 푸른 사다리	공지영	한겨레출판
7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	난다
8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박영신	정신세계사
9	인생수업	법륜	휴먼어린이
10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열린책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5년(제11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5대 가족	고은, 이억배	바우솔
2	금동향로 속으로 사라진 고양이	이하은	파란자전거
3	나의 친친 할아버지께	강정연	라임
4	목기린 씨, 타세요!	이은정	창비
5	슈퍼 거북	유설화	책읽는곰
6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	마크 핏, 게리 루빈스타인	두레아이들
7	책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8	텔레비전을 끌 거야!	제임스 프로이모스	두레아이들
9	플라스틱 섬	이명애	SANG
10	햄스터 마스크	우쓰기 미호	책읽는곰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갈색 아침	프랑크 파블로프	휴먼어린이
2	빵 터지는 빵집	원유순	크레용하우스
3	세계를 바꾸는 착한 기술 이야기	유영선	북멘토
4	악당의 무게	이현	휴먼어린이
5	앵그리맨	그로 달레	내인생의책
6	앵무새 돌려주기大作전	임지윤	창비
7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	황선미	비룡소
8	이중섭,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최한중	사계절
9	제인 에어와 여우, 그리고 나	패니 브리트	책과콩나무
10	초등생을 위한 환경특강	윤해윤	나무처럼
청소년 (중학생)			
1	김치도 콩치도 아닌 정치	임정은	다른
2	내 이름은 욕비	욕비 토나	이후
3	모두 갇힌	김중미	창비
4	생명의 릴레이	가마타 미노루	양철북
5	우리 친구 맞아?	이남석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대한민국 치킨전	정은정	따비
2	델 문도	최상희	사계절
3	수상한 북클럽	박현희	문학동네
4	식탁 위의 한국사	주영하	휴머니스트
5	어쩐지 근사한 나를 발견하는 51가지 방법	공혜진	동양북스
일반			
1	1그램의 용기	한비야	푸른숲
2	뉴스의 시대	알랭 드 보통	문학동네
3	단속사회	엄기호	창비
4	사라져가는 것들의 안부를 묻다	윤신영	MID
5	소년이 온다	한강	창비
6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이일수	시공아트
7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석	소나무
8	자스민, 어디로 가니?	김병중	열림원
9	철학자와 하녀	고병권	메디치
10	투명인간	성석제	창비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6년(제12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거짓말 경연대회	이지훈	거북이북스
2	나부댕이!	제니 오피	봄나무
3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	허가람	웅진주니어
4	마음을 배달해 드립니다	박현숙	좋은책어린이
5	멧돼지가 쿵쿵 호박이 동동	김애란	창비
6	벌집이 너무 좁아!	안드레스 피 안드레우	고래이야기
7	선생님은 몬스터!	피터 브라운	사계절
8	소원을 말해 봐	김소연	비룡소
9	이유가 있어요	요시타케 신스케	봄나무
10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	최은옥	주니어김영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2등을 위하여	실비아 태케마	아름다운 사람들
2	7년 동안의 잠	박완서	어린이작가정신
3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	김진희	문학동네어린이
4	빨간 자전거	주드 이사벨라	머스트비
5	아빠, 소 되다	해리 해성	한림출판사
6	얘들아, 왜 지구가 아픈지 아니?	안드레아스 슐롬베르거	토토북
7	엄마는 학교 매니저	안미란	주니어김영사
8	여름이 반짝	김수빈	문학동네어린이
9	쥐포 스타일	김지영	비룡소
10	화학이 정말 우리 세상을 바꿨다고?	실바나 푸시토	찰리북
청소년 (중학생)			
1	꼰대 아빠와 등골브레이커의 브랜드 썰전	김경선	자음과모음
2	소년이여, 요리하라	금정연 외	우리학교
3	수상한 진흙	루이스 새커	창비
4	쓸모없어도 괜찮아	희망철학연구소	동녘
5	테오도루 24번지	손서은	문학동네
청소년 (고등학생)			
1	꽃 달고 살아남기	최영희	창비
2	세상을 바꾼 이슬람	이희수	다른
3	창밖의 아이들	이선주	문학동네
4	하리하라의 음식과학	이은희	살림Friend
5	홀딩 파이브 도와줘!	김성빈	마리북스
일반			
1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운	21세기북스
2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열린책들
3	근시 사회	폴 로버츠	민음사
4	내 서재 속 고전	서경식	나무연필
5	담론	신영복	돌베개
6	사랑하는 안드레아	퉁잉타이, 안드레아	양철북
7	서민적 글쓰기	서민	생각정원
8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김혜남	갤리온
9	철학의 힘	김형철	위즈덤하우스
10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	강윤중	서해문집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7년(제13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섭	사계절
2	거짓말	카트린 그리브	씨드북
3	눈을 감아 보렴!	빅토리아 페레스 에스κρι바	한울림스페셜
4	비닐봉지 하나가	미란다 폴	길벗어린이
5	산딸기 크림붕붕	에밀리 젠킨스	씨드북
6	아빠나무	김미영	고래벳속
7	커럼포의 왕 로보	윌리엄 그릴	찰리북
8	하룻밤	이금이	사계절
9	행복한 늑대	엘 에마토크리티코	봄별
10	혼자가 아닌 날	구오징	미디어창비
초등 고학년 (4~6학년)			
1	503호 열차	허혜란	샘터
2	대단한 단추들	이정록	한겨레아이들
3	도둑왕 아모세	유현산	창비
4	바람의 맛	김유경	이야기꽃
5	분홍문의 기적	강정연	비룡소
6	아름다운 아이 줄리안 이야기	R. J. 팔라시오	책과콩나무
7	엘 데포	시시 벨	밝은미래
8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권재원	창비
9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최은옥	비룡소
10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	남찬숙	미세기
청소년 (중학생)			
1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안야 슈튀르처	푸른숲주니어
2	싸이퍼	탁경은	사계절
3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최종욱	창비
4	안중근 재판장 참관기	김흥식	서해문집
5	이런 법이 어땠어?	니콜라 린트너	탐
청소년 (고등학생)			
1	그린잡	박경화	양철북
2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김민태	위즈덤하우스
3	열일곱 살의 욕망연습	안광복	사계절
4	위험한 과학책	랜들 먼로	시공사
5	한 스펀의 시간	구병모	예담
일반			
1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EBS 다큐프라임 제작팀, 유규오	후마니타스
2	거짓말이다	김탁환	북스피어
3	공부할 권리	정여울	민음사
4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윤용인	알키
5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수 클리블드	반비
6	나는 지하철입니다	김효은	문학동네
7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8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이오덕, 권정생	양철북
9	숨결이 바람될 때	폴 칼라니티	흐름출판
10	화가의 마지막 그림	이유리	서해문집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8년(제14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곰씨의 의자	노인경	문학동네
2	그 소문 들어어?	하야시 기린	천개의바람
3	두 배로 카메라	성현정	비룡소
4	마지막 뉴스	서정홍	웃는돌고래
5	바로 그 신발	마리베스 볼츠	지양어린이
6	생각이 커진 집	리샤르 마르니에	책과콩나무
7	안읽어 씨 가족과 책 요리점	김유	문학동네
8	영동한 수리점	차재혁	노란상상
9	영터리 집배원	장세현	어린이작가정신
10	오, 멋진데!	마리 도를레앙	이마주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나만 잘하는 게 없어	이승민	풀빛
2	나무도장	권윤덕	평화를 품은 책
3	내가 개였을 때	루이즈 봉바르디에	씨드북
4	넘어진 교실	후쿠다 다카히로	개암나무
5	다 잘 될 거야	키어스텐 보이에	책빛
6	멋진 하루	안신애	고래벓속
7	바닷가 탄광 마을	조앤 슈워츠	국민서관
8	붉은 실	이나영	시공주니어
9	아빠, 왜 히틀러한테 투표했어요?	디디에 데랭크스	봄나무
10	플로팅 아일랜드	김려령	비룡소
청소년 (중학생)			
1	1등에게 박수 치는 게 왜 놀랄 일일까	오찬호	나무를심는사람들
2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타라 설리번	푸른숲주니어
3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문지현	뜨인돌
4	왜 인공지능이 문제일까?	조성배	반니
5	운동장 편지	북효근	창비교육
청소년 (고등학생)			
1	그러니까 이게, 사회라고요?	박민영	북트리거
2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	동아시아
3	나의 첫 젠더 수업	김고연주	창비
4	스타벅스에 간 소녀	소피 킨셀라	라임
5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하지현	창비
일반			
1	그대를 듣는다	정재찬	휴머니스트
2	기술 중독 사회	켄타로 토야마	유아이박스
3	딸에 대하여	김혜진	민음사
4	바깥은 여름	김애란	문학동네
5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	승효상	돌베개
6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더숲
7	소비의 역사	설혜심	휴머니스트
8	아름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동아시아
9	예술, 역사를 만들다	전원경	시공아트
10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유은정	21세기북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9년(제15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나는 소심해요	엘로리 페로탱	이마주
2	다다다 다른 별 학교	윤진현	천개의바람
3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허은미	여유당
4	사소한 소원만 들어주는 두꺼비	전금자	비룡소
5	아름다운 실수	코리나 루이켄	나는별
6	터널	헤게 시리	책빛
7	행복한 줄무늬 선물	야스민 세퍼	봄별
8	곰팡이 수지	레오노라 라이틀	스콜라
9	꽃을 선물할게	강경수	창비
10	한밤중 달빛 식당	이분희	비룡소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꿈꾸는 코끼리 디짜이	강민경	현암주니어
2	내 마음 배송 완료	송방순	논장
3	표절 교실	김해우	크레용하우스
4	까칠한 아이	남찬숙	대교북스주니어
5	나이 도둑	정해왕	해와나무
6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	시릴 디옹	한울림어린이
7	도서관을 훔친 아이	알프레도 고메스 세르다	폴빛미디어
8	딜쿠샤의 추억	김세미, 이미진	찰리북
9	리얼 마래	황지영	문학과지성사
10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씨	다나카와 슌타로	천개의바람
청소년 (중학생)			
1	내 안의 새는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	사라 룬드베리	산하
2	내 휴대폰 속의 슈퍼 스파이	타니아 로이드 치	푸른숲주니어
3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안내서	서의동	너머학교
4	죽은 경제학자의 이상한 돈과 어린 세 자매	추정경	둘베개
5	처음엔 사소했던 일	왕수편	뜨인돌
청소년 (고등학생)			
1	꿀벌과 시작한 열일곱	모리야마 아미	상추쌈
2	서울 사는 외계인들	이상권	자음과모음
3	왜 언론이 문제일까?	박영흠	반니
4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나쓰카와 소스케	아르테
5	최원형의 청소년 소비특강	최원형	철수와영희
일반			
1	70세 사망법안, 가결	가키야 미우	왼쪽주머니
2	나, 참 쓸모 있는 인간	김연숙	천년의상상
3	당신이 옳다	정혜신	해냄
4	마녀체력	이영미	남해의봄날
5	모스크바의 신사	에이모 토울스	현대문학
6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블랙피쉬
7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류승연	푸른숲
8	시가 있는 바닷가 어느 교실	최종득	양철북
9	유머니즘	김찬호	문학과지성사
10	쾌락독서	문유석	문학동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20년(제16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	유다정	와이즈만BOOKs
2	귀 큰 토끼의 고민 상담소	김유	시공주니어
3	내일 또 싸우자	박종진	소원나무
4	내일의 동물원	에릭 바튀	봄별
5	밀어내라	이상옥	한솔수북
6	천하무적 용기맨	김경희	비룡소
7	평 아저씨	김미소진	계수나무
8	강아지 시험	이묘신	해와나무
9	뭔가 특별한 아저씨	진수경	천개의바람
10	힙합 독수리	박주혜	비룡소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나는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입니다	이현	만만한책방
2	셋다운	김태호 외	현복스
3	축구왕 이채연	유우석	창비
4	간송 미술관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	김민규	토토북
5	내가 김소연진아일 동안	황선미	위즈덤하우스
6	어린 만세꾼	정명섭	사계절
7	우리는 반대합니다	클라우드오 푸엔테스	초록개구리
8	유투브 전쟁	양은진	엠앤키즈
9	착한 마녀의 일기	송현섭	문학동네어린이
10	흑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고소했다	공수경	대교북스주니어
청소년 (중학생)			
1	동물 농장	조지 오웰	.
2	저 청소년 하는데요?	김예지	21세기북스
3	질문하는 영화들	라제기	북트리거
4	체리 새우 :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문학동네
5	최저 임금 쯔 아는 10대	하승우	풀빛
청소년 (고등학생)			
1	시간을 파는 상점. 2 : 너를 위한 시간	김선영	자음과모음
2	역사의 쓸모	최태성	다산초당
3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장 지글러	시공사
4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박경화	한겨레출판
5	페인트	이희영	창비
일반			
1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히 뵐	민음사
2	감정 폭력	베르너 바르텐스	걷는나무
3	경찰관속으로	원도	이후진프레스
4	도시의 얼굴들	허정도	지앤유
5	로마법 수업	한동일	문학동네
6	설이	심윤경	한겨레출판
7	어차피 살 거라면, 백 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근후	메이븐
8	이토록 고고한 연예	김탁환	북스피어
9	작별 인사는 아직이에요	김달님	어떤책
10	퇴근길 클래식 수업	나웅준	페이스메이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21년(제17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허정윤	한솔수북
2	말들이 사는 나라	윤여림	위즈덤하우스
3	범 내려온다	김진	아이들판
4	우리 곤충 채집할래요?	이노우에 타케나리	썬더키즈
5	이까짓 거!	박현주	이야기꽃
6	큰일 났다	김기정	다림
7	할머니의 용궁 여행	권민조	천개의바람
8	걱정 세탁소	홍민정	좋은책어린이
9	욕 좀 하는 이유나	류재향	위즈덤하우스
10	이불 바다 물고기	황섭균	웅진주니어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밤의 교실	김규아	샘터사
2	소녀와 소년, 멋진 사람이 되는 법	윤은주	사계절
3	진짜 내 소원	이선미	글로연
4	13일의 단톡방	방미진	상상의집
5	고조를 찾아서	이지은 외	사계절
6	내가 만만해?	이지호(역음)	어린이시나라
7	너의 운명은	한윤섭	푸른숲주니어
8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최원형	책읽는곰
9	씨드	최영희	동아시아사이언스
10	편의점	이영아	고래뱃속
청소년 (중학생)			
1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2	독고송에게 반하면	허진희	문학동네
3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찰리 맥커시	상상의힘
4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	구본권	북트리거
5	할아버지의 달콤한 유산	평수화	뜨인돌
청소년 (고등학생)			
1	법정에 선 수학	레일라 슈넵스 외	아날로그
2	빅데이터로 직업을 고른다면	신지나	다른
3	알로하, 나의 엄마들	이금이	창비
4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공유희, 윤예림	창비교육
5	쿨센터 상담원, 주운 씨	박주운	애플북스
일반			
1	가재가 노래하는 곳	델리아 오언스	살림
2	경남 동네 여행	이서후 외	경남도민일보
3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	브래디 미카코	다다서재
4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고재욱	웅진지식하우스
5	매핑 도스토옙스키	석영중	열린책들
6	사람에 대한 예의	권석천	어크로스
7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문학동네
8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사계절
9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정재찬	인플루엔셜
10	컬렉터, 역사를 수집하다	박건호	휴머니스트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22년(제18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형식/주제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곰이 왔어!	조수경	올리	그림책(공동체/다양성)
2	그 공 차요!	박규빈	길벗어린이	그림책(노동/인권)
3	깊은 밤 필통 안에서	길상호	비룡소	동화(개성/존중)
4	꿀벌 아피스의 놀라운 35일	캔디스 플레밍	책읽는곰	비문학(생태/생명)
5	미움	조원희	만만한책방	그림책(마음/감정)
6	신비 아이스크림 가게	김원아	주니어김영사	동화(가족애/행복)
7	호랑이 생일날이렸다	강혜숙	우리학교	그림책(옛이야기)
8	겨울 별	이소영	글로연	그림책(가족/관계)
9	아주 작고 슬픈 팩트	조너 윈터	라임	그림책(미디어/진실)
10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	유미희	초록개구리	그림책(환경/멸종/공존)
초등 고학년 (4~6학년)				
1	6분 소설가 하준수	이수용	위즈덤하우스	동화(글쓰기/우정)
2	선생님, 착한 손잡이가 뭐예요?	배성호	철수와영희	비문학(유니버설디자인/배려)
3	오늘도 학교로 로그인	문현식	창비	시(동시/학교생활)
4	강을 건너는 아이	심진규	천개의바람	동화(역사/극복)
5	국경	구돌	책읽는곰	그림책(경계/소통)
6	그때 너 왜 울었어?	박현경	잇츠북	동화(공감/성장)
7	다이너마이트	김민령 외	사계절	동화(단편/가치)
8	마지막 레벨 업	윤영주	창비	동화(모험/가상세계)
9	몬스터 차일드	이재문	사계절	동화(편견/차별)
10	이토록 불편한 고기	크리스토프 드뢰서	그레이트북스	비문학(환경/비건)
청소년				
1	변기에 빠진 세계사	이영숙	자음과모음	비문학(세계사/전염병/문화)
2	사춘기와 그런 게 아니라 우울해서 그런거예요	양근성	팜파스	비문학(자존감/사춘기심리)
3	순례 주택	유은실	비룡소	문학(공동체/나눔/관계)
4	시간을 건너는 집	김하연	특별한서재	문학(성장/판타지)
5	우리만의 편의점 레시피	범유진	탐	문학(가족애/위로/편견)
6	슬픈 돈을 찾아라	배리언 존슨	씨드북(주)	문학(인종차별/미국역사/추리)
7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태지원	자음과모음	비문학(미디어/차별/인권)
8	지구가 너무도 사나운 날에는	가치를꿈꾸는과학교사모임	우리학교	비문학(기후변화/미래식량/진화)
9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문학(고전/과학/인간복제)
10	호수의 일	이현	창비	문학(소문/관계/치유/회복)
일반				
1	그냥 하지 말라	송길영	북스톤	비문학(코로나이후/빅데이터/변화/혁신)
2	그대로 둔다	서정홍	상추쌈	문학(시/생태/농부시인)
3	내가 사랑한 화가들	정우철	나무의철학	비문학(화가/교양미술)
4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	RHK	비문학(기후/환경/공존)
5	밝은 밤	최은영	문학동네	문학(소설/여성/삶/연대/사랑)
6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나무옆의자	문학(소설/회복/공존)
7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에릭 와이너	여크로스	비문학(철학/삶/질문)
8	조선의 살림하는 남자들	정창권	돌베개	비문학(한국사/생활풍속)
9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자이언트북스	문학(소설/SF/미래지구)
10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장명숙	김영사	문학(에세이/인생/행복)

